

한국 1세 아동의 현주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www.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한국 1세 아동의 현주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한국 1세 아동의 현주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www.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한국아동패널 소개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아동의 출생부터 12년 동안의 성장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패널」은 2006년 모형 개발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중단 조사를 실시하며, 3차례에 걸쳐 심층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8년에는 전국 6개 권역별(서울권, 경인권, 충청/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에서 표집된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2,078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1차년도 조사가 완료되었고, 2차년도(2009)에는 1,904명의 조사패널을 완료하여 1차년도 대비 표본율 91.6%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차년도 조사와 1차 심층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4차년도 조사가 시행될 것입니다.

〈한국아동패널의 연도별 조사 실시 계획〉

	일반조사										심층 조사	비고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초등1)	9세 (초등3)	12세 (초등6)		
2008년	1차											
2009년		2차									1차	
2010년			3차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2011년				4차								
2012년					5차						2차	
2013년						6차						
2014년							7차					
2015년								8차			3차	
2017년									9차			
2020년										10차		

저희 연구소는 국가 수준의 신생아 패널을 구축함으로써 단일 연령 집단의 횡단적인 자료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적인 자료를 함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 부모 양육 등의 미시적인 특성과 육아지원기관, 이들이 속한 사회적 특성을 시간의 흐름을 통해 살펴보고, 향후 발전된 육아정책개발에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 아동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저희 육아정책연구소가 우리나라 미래 인적자원 육성으로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육아정책연구소

목차

CONTENTS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I	가족특성	6
	1. 경제적 특성	6
	2. 주거관련 특성	9
	3. 남편의 양육참여	10
	4. 가족생활사건	11
	5. 사회적 지원	12
II	부모특성	14
	1. 어머니의 근로특성	14
	2. 임신과 출산	17
	3. 부모의 정신건강	21
	4. 부부관계	28
	5. 양육특성	31
III	아동특성	35
	1. 아동의 건강 특성	35
	2. 아동의 발달	37
	3. 기질	40
	4. 기초생활습관	43
IV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45
	1. 서비스 이용 현황	45
	2. 개인대리양육	47
	3. 보육시설	50
V	지역사회 특성	55
	1. 육아지원기관 및 학원시설	55
	2. 공공여가, 문화시설	60
	3. 치안 및 안전	61
	4. 전반적인 육아적절성	62
	5. 위탁가구의 지역사회	64
VI	육아지원 정책 특성	65
	1. 일과 가정 양립정책	65
	2. 육아지원서비스 정책	69

I. 가족특성

가족의 특성은 자녀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미시체계의 하나로서 생애 최초의 경험들이 제공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에서 이 시기의 경험은 향후 발달에 기초가 됨. 이에 이 장에서는 경제적 특성, 주거관련 특성을 토대로 남편의 양육 참여, 가족생활 사건, 사회적 지원 등에 관한 가족특성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함.

1. 경제적 특성

■ 아동이 속한 경제적 환경의 안정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소득 및 소비 지출뿐만 아니라 가구 소득 대비 저축, 자산 및 부채 규모를 통해 가정 경제가 얼마나 짜임새 있게 경영되고 있는지와 국가의 미래 경제적 지위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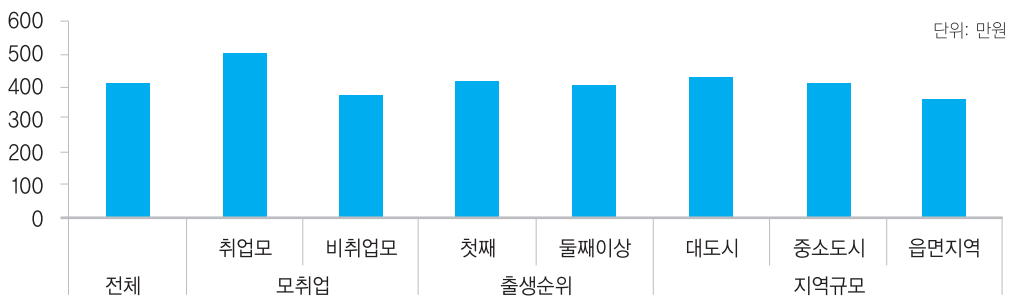
■ 가구의 소득 수준은 일반적으로 가구의 경제적 지위를 가늠하는 지표로써, 소득수준을 통해 물질적 가용 자원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음.

○ 1세 영아를 가진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409.08만원으로 나타났다.

○ 어머니의 취업여부,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취업모 가구(600명)의 월 평균 소득은 504.16만원으로 비취업모 가구(1267명) 365.07만원에 비해 약 140만원 정도 높음.

–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중소도시는 읍면도시보다 소득이 높음.



[그림 1] 월 평균 가구 소득

■ 소비수준 및 형태가 소득 수준과는 별개로 가구 경제 활동에 대한 중요한 지표로 제시됨. 특히 가구 유형과 자녀 유무에 따라 소비성향 및 지출이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가구의 지출을 소비성 지출과 비소비성 지출로 나누고 아동을 위한 지출을 별도 조사함.

○ 가구의 총 소비성 지출은 어머니의 취업여부,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표 1〉 가구 총 소비성 지출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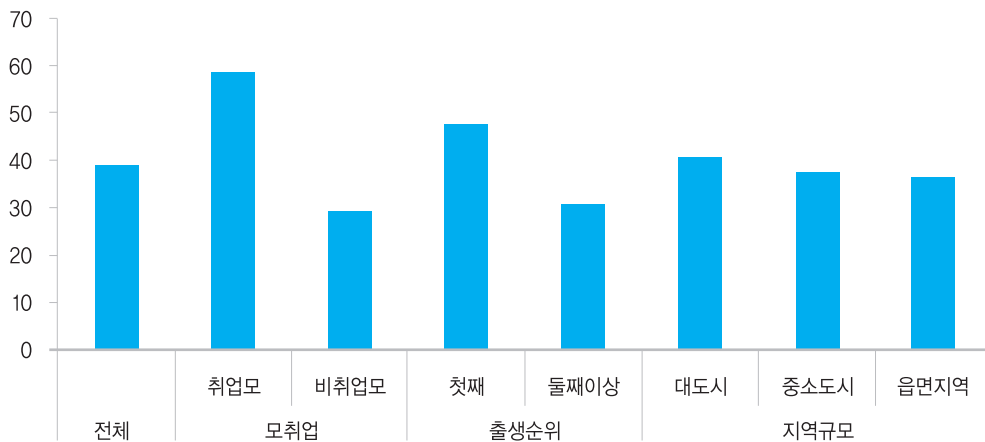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평균	187.43	219.78	172.67	184.94	189.68	201.40	188.14	150.08
표준편차	197.56	199.89	195.72	245.62	140.35	225.45	199.01	75.30
중위값	150	200	150	150	160	170	150	150
최소값	20	30	20	20	30	30	20	30
최대값	3600	3600	3000	3600	3000	3600	2500	800

– 가구의 총소비성 지출은 한달 평균 187.43만원이고, 취업모는 219.78만원, 비취업모 172.67만원으로 취업모가 더 많음.

– 지역규모에 따라서 대도시 201.4만원, 중소도시 188.14만원, 읍면지역 150.08만원임.

○ 소비성 지출 중 아동을 위해 소비하는 지출은 한달 평균 38.51만원이 소요됨.

단위: 만원



[그림 2] 아동 총 소비성 지출

○ 아동에게 지출되는 피복, 신발, 교육, 교통, 통신 등의 소비성 지출금액은 어머니의 취업여부, 출생 순위,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취업모는 월평균 58.32만원, 비취업모는 29.11만원을 소비하고, 첫째아인 경우 47.33만원, 둘째아인 경우 30.56만원으로 나타남.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에 비해, 또 중소도시가 읍면 지역에 비해 더 많이 소비함.

○ 가구의 각종 세금, 보험 등의 비소비성 지출은 평균 88.93만원임.

○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취업모 104,09만원, 비취업모 81.98만원으로 나타남.

〈표 2〉 가구 총 비소비성 지출

단위: 만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평균	88.93	104.09	81.98	87.77	89.98	90.27	88.48	86.45
표준편차	107.60	110.87	105.92	122.23	92.42	113.63	79.92	142.10
중위값	70	80	60	60	70	70	70	60
최소값	1	5	1	4	1	1	1	5
최대값	2000	1500	2000	2000	1200	1500	750	2000

○ 아동을 위해 지출하는 세금이나 의료보험료 등의 비소비성 지출은 평균 11.75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 취업 여부, 출생 순위, 지역규모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아동 총 비소비성 지출

단위: 만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평균	11.75	11.50	11.92	12.97	10.64	12.42	11.19	11.32
표준편차	30.18	25.54	32.24	39.36	18.24	40.15	19.95	17.50
중위값	6	6	6	6	5	6	6	6
최소값	0	1	0	1	0	0	1	1
최대값	1200	400	1200	1200	240	1200	400	240

2. 주거관련 특성

■ 아동의 주거환경은 생존 및 일상생활, 그리고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침. 아동은 주거공간에서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가족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게 됨. 따라서 주거환경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

■ 주거 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주거 특성과 주택 소유 형태를 파악함.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인 경우가 42.5%, 전세 40.8%, 월세 8.1%, 사택과 같은 무상으로 거주하는 형태 7.0%로 나타남.

〈표 4〉 주택 소유형태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자가	42.5	41.9	42.5	36.2	48.2	42.5	42.5	43.2
전세	40.8	43.7	39.6	47.1	35.0	40.8	41.4	43.5
전월세(보증부 월세)	8.1	6.0	9.0	7.9	8.2	8.1	7.8	6.6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0.5	0.2	0.6	0.5	0.5	0.5	0.5	0.3
무상	7.0	6.6	7.3	6.6	7.4	7.0	6.7	5.4
기타	1.2	1.6	1.0	1.7	0.7	1.2	1.0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택소유 형태는 아동의 출생 순위,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출생순위에 따라 둘째아인 경우 자가 비율이 48.2%로 가장 높았던 반면, 첫째아인 경우, 전세가 47.1%로 많음.
-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중소도시에서 자가인 경우가 42.5%로 가장 많았던 반면, 읍면 지역에서는 전세 43.5%, 자가 43.2%로 전세가 조금 더 많음.

○ 거주 중인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71.0%로 가장 많고 연립주택 12.2%, 단독 자택 7.4%, 다세대 주택 6.9%의 순임. 비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1.7% 있음.

3. 남편의 양육 참여

핵 가족화된 현대사회에서 아내의 사회적 역할의 증대와 더불어 남편의 자녀 양육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남편의 양육참여는 아내와는 다른 관점에서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 아내를 대상으로 남편의 자녀양육 협조 정도를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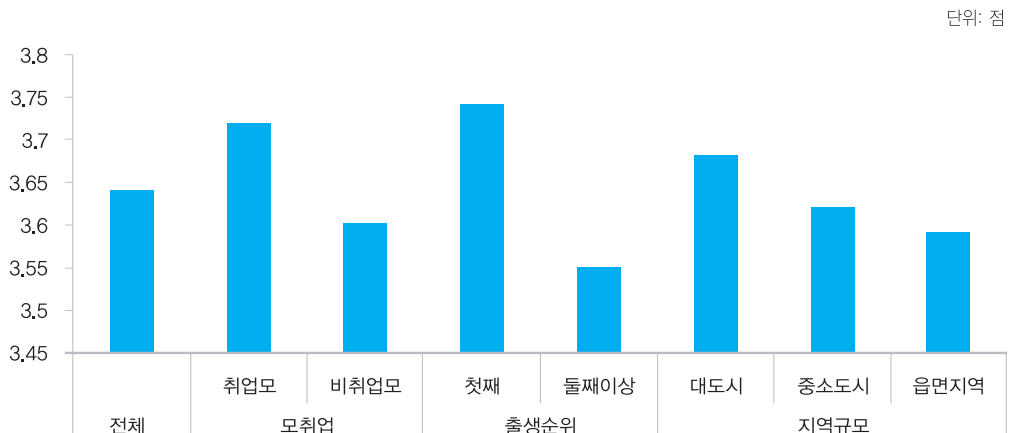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역할 불평등으로 인해 육아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가중되는 상황임. 이로 인해 여성의 혼인 및 출산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일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의 경우 남성은 42분, 여성은 3시간 35분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5배 높게 나타남.

■ 1차년도 조사 시 아내는 남편의 자녀양육 협조(아기와 자주 놀아주기, 우유 먹이기나 목욕시키기 등)에 대해 평균 3.16점으로 나타났으나, 2차년도에는 3.64 점으로 생후 1년이 지나면서 남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내의 취업 여부와 자녀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남편이 자녀양육에 협조를 더 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보다 첫째 자녀인 경우 양육에 보다 더 협조적이라고 응답함.



[그림 3] 아버지의 자녀양육 협조(어머니 응답)

4. 가족생활사건

- 가족생활 사건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생활사건의 경험이 심리적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낮은 생활만족도와 높은 우울로 연결되게 되므로 생활 만족도의 중요한 예측변인임.
- 가족생활 사건 중 규범적 사건은 규범적 사건은 사회통념상 수용 가능한 사건을 뜻하며, 비규범적 사건은 규범적으로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부정적인 사건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는 비규범적 사건이 규범적 사건에 비해서 더 높다고 함.
- 규범적 사건의 경우 불경기로 인한 수입 변화, 병원비, 의식주 비용, 자녀 교육 비용 등의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이나 빚, 직장 관련 변동, 이사 자녀의 학교 성적 등 부담이 될 사건 16건에 대한 경험 여부를 조사함.

〈표 5〉 규범적 사건

단위: 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평균	3.86	3.65	3.96	3.56	4.14	3.76	3.90	4.05
표준편차	0.67	2.34	2.48	2.41	2.44	2.38	2.49	2.49

- 규범적 사건은 자녀 교육 비용, 병원비, 의식주 비용, 수입 변화, 가계부담이나 빚 등의 순으로 많이 경험했으며 한 해 동안 평균 3.86점은 것으로 응답함.
- 규범적 사건은 어머니의 취업 유무와 출생 순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 비취업모의 3.96건, 취업모 3.65건으로 비취업모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음.
 - 둘째아 경우 4.14건, 첫째아 3.56건으로 둘째아 집단에서 높음.
- 비규범적 사건의 경우 부모 자신 또는 가족이 겪은 사건 중 가족이나 친인척이 심하게 다치거나, 사망 또는 가정 폭력, 가출, 구속, 병간호 부담 등과 관련된 사건이 포함된 11개 문항을 사용하였음.
 - 비규범적 사건은 자신, 배우자와 가족 중 다치거나 가족이나 친척의 사망, 병간호 부담, 주변사람이 아프거나 다친 사건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한해 동안 평균 0.67 건으로 나타남.
 - 비규범적 사건은 어머니의 취업 유무, 출생 순위, 지역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 비취업모의 0.70건, 취업모 0.57건으로 비취업모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음.
- 둘째아 경우 0.74건, 첫째아 0.59건으로 둘째아 집단에서 높음.
- 읍면 지역이 0.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0.65건, 대도시 0.62순으로 나타났음.

〈표 6〉 비규범적 사건

단위: 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평균	0.67	0.57	0.70	0.59	0.74	0.62	0.65	0.83
표준편차	0.99	0.90	1.02	0.91	1.06	0.93	0.99	1.13

5.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은 가족, 친구, 이웃 등 대인관계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받는 도움으로 안정적인 대인관계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도구적 욕구 충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사회적 지원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지원 체계가 제한적인 취약계층 가정의 경우 매우 의미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본 절에서는 패널 아동의 가정이 받고 있는 사회적 지원을 살펴 보았음.

■ 사회적 지원의 전반적 수준

-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가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적 관계에서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을 얼마나 받는 지에 대해 조사함.
- 사회적 지원은 12개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 사회적 지원의 특성에 관계없이 전체 문항 평균은 3.9점이었음.

■ 취업여부, 자녀의 출생순위, 지역 규모에 따른 사회적 지원

- 취업모의 사회적 지원 점수(3.92점)가 비취업모의 점수(3.86점) 보다 높아 취업모가 사회적 지원에 있어서는 도움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도구적 지원, 여가적 지원, 정보적 지원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라 도구적 지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거주지역의 규모가 커질수록 도구적 지원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사회적 지원

단위: 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전체	평균	3.9	3.92	3.86	3.9	3.9	3.9	3.9	3.8
	표준편차	0.6	0.62	0.64	0.6	0.6	0.6	0.7	0.7
정서적 지원	평균	3.9	3.88	3.86	3.9	3.8	3.9	3.9	3.8
	표준편차	0.8	0.78	0.77	0.8	0.8	0.7	0.8	0.8
도구적 지원	평균	3.9	3.98	3.91	3.9	3.9	4.0	3.9	3.8
	표준편차	0.7	0.71	0.70	0.7	0.7	0.7	0.7	0.8
여가적 지원	평균	3.9	3.94	3.86	3.9	3.9	3.9	3.9	3.8
	표준편차	0.7	0.66	0.72	0.7	0.7	0.6	0.7	0.8
정보적 지원	평균	3.8	3.86	3.80	3.8	3.8	3.8	3.8	3.8
	표준편차	0.7	0.73	0.75	0.7	0.8	0.7	0.8	0.7

II. 부모특성

부모는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환경임. 어머니의 근로 특성, 임신과 출산, 부모의 정신건강, 부부관계와 양육특성을 알아보고자 함.

1. 어머니의 근로특성

어머니의 근로특성은 가정의 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 최근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여성에게 전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취업모의 경우 직장과 자녀 양육, 가사 노동이라는 다중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어머니의 취업상태

- 어머니의 취업상태는 '출산 후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는 72.4%, '출산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은 15.3%, '휴직 중'은 12.3%로 응답됨.
- 어머니의 취업상태와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어머니가 '출산 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한 경우는 지역에 관계없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읍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남.
 - '휴직 중'인 어머니는 대도시 12.2%, 중소도시 16.0%이었으나, 읍면지역은 3.1%로 적게 나타남.
 - '출산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다는 응답은 대도시가 11.4%로 가장 적은 반면, 중소도시는 19.2%, 읍면지역은 17.5%로 대도시에 비하여 많았음.
- 1차년도(2008) 연구결과에 비해, '출산 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한 경우는 전체 68.1%에서 72.4%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는 3.1%에서 15.3%로 증가한 반면, '휴직 중'인 비율은 28.8%에서 12.3%로 절반 이상 감소함.

〈표 8〉 현재 취업상태

단위: %

구분	1차 년도	2차년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휴직 중	28.8	12.3	13.5	11.0	12.2	16.0	3.1
출산 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	68.1	72.4	74.0	70.6	76.4	64.8	79.4
출산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	3.1	15.3	12.5	18.4	11.4	19.2	1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현재 취업 중인 어머니의 특성

- ‘출산 후 직장 복귀’ 및 ‘신규 취업’ 시점에 아동의 연령은 평균 5.5개월이었음. 첫째아인 경우는 5.69개월, 둘째아 이상인 경우는 5.41개월로 첫째아를 출산한 어머니의 휴직 기간이 조금 더 길었으며, 지역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순으로 복귀 시기가 조금씩 더 늦었음.
- 현재 취업 중인 어머니의 주당 근로시간은 총 42.17시간으로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음. 어머니의 출퇴근 소요시간은 대도시가 5.66시간, 중소도시가 4.57시간, 읍면지역이 2.62시간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4.75시간이었음.

〈표 9〉 취업 중인 어머니의 특성

단위: 개월, 시간

구분	2차년도 전체 평균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직장 복귀 및 신규 취업 시점	5.55	5.69	5.41	5.16	5.80	6.09
어머니의 주당 근로시간	42.17	42.34	42.00	42.65	41.00	43.47
어머니의 출퇴근 소요시간	4.75	4.95	4.53	5.66	4.57	2.62

■ 직장 복귀 및 신규 취업한 어머니의 향후 취업계획

- 직장 복귀 및 신규 취업한 어머니는 ‘현 직장에 계속 근무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96.1%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일을 그만 둘 계획’이라는 응답이 1.7%, ‘이직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1.5%로 나타났음.

〈표 10〉 향후 취업계획

단위: %

구분	1차 년도	2차년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현 직장에 계속 근무할 계획임	94.0	96.1	94.4	97.9	97.0	96.2	93.3
이직할 계획임	3.5	1.5	2.1	0.9	1.1	1.2	3.2
일을 그만 둘 계획임	2.5	1.7	2.7	0.6	1.8	0.9	2.8
기타	0	0.8	0.9	0.6	0.0	1.7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을 계획하는 이유

-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27.1%로 가장 많았고, ‘직장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기 힘들어서’가 26.4%이었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는 8.8%,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7.7%로 대리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음.
- ‘다른 일자리나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22.2%로 어머니 자신에 의한 퇴직이나 이직 의사도 상당수 존재했음.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에’라는 응답은 3.1%로 여성이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이 존재하고 있음이 나타남.
- 1차년도(2008) 조사에서는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라는 응답 17.9%에 비해 2차년도(2009) 조사에서는 27.1%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음. 또한,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1차년도 24.6%였던 것에 비해 2차년도에는 7.7%로 현저히 줄었음.
- ‘직장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는 1차년도 29.3%, 2차년도 26.4%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아이가 생후 1년이 지나면서 직장생활과 아이양육의 병행 문제나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 모성의 욕구는 여전히 존재함.

■ 휴직 중인 어머니의 향후 복귀 계획

- 휴직 중인 어머니들의 83.8%(494명)가 향후 직장에 ‘복귀할 계획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약 7.1%는 ‘복귀할 계획이 없음’으로 나타남.
 - 지역규모에 따라 보면, 대도시 84.0%, 중소도시 84.8%가 향후 직장에 ‘복귀할 계획임’으로 응답한데 비해, 읍면지역은 67.5%로 적게 나타났음. ‘잘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에서 더 높았음.
 - 둘째아 이상인 어머니는 ‘직장으로 복귀할 계획이 없음’이라는 응답이 14.8%였던 반면, 첫째아의 경우 1.2%로 더 적게 나타남. 그러나 ‘잘 모르겠음’이라는 응답은 첫째아인 경우에는 14.5%, 둘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1.9%로 나타남.
- 직장으로의 복귀 계획이 있는 어머니의 복귀 계획 시점은 평균 19.3개월로 나타났으며,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2. 임신과 출산

출산은 부모가 되는 경제적 이유나 삶의 즐거움과 관련된 가치관뿐만 아니라 자녀를 가져본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그런데 출산계획이 반드시 출산행위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으나, 출산에 대한 조절이 가능한 상황에서의 출산계획은 실제 출산행위를 전망하는데 매우 유용함. 후속출산은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실제로 출산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는 과정이므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함. 이에 따라 임신과 출산, 후속출산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1) 이상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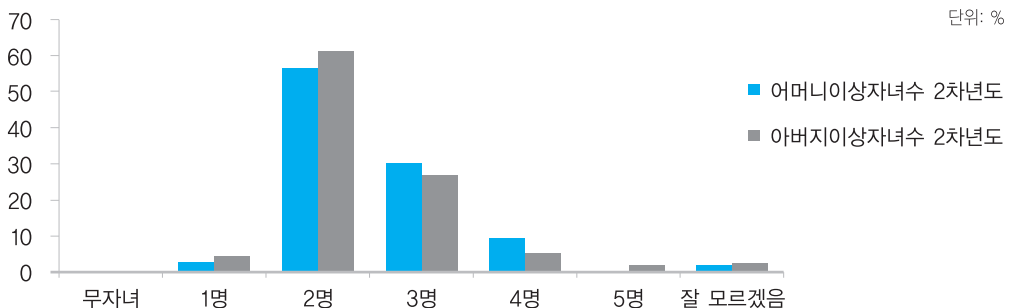
■ 이상 자녀는 가족 계획이나 현재 자녀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자녀는 몇 명을 두는 것이 이상적인지에 대한 주관적인 자녀규모를 밝히는 가치관임.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수

- 부모 모두 '2명'의 자녀수가 이상적이라고 응답(56.1%), 그 다음으로 '3명'의 자녀수에 응답(30.2%), '4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어머니 9.2%, 아버지 5.7%이었음. 아버지의 이상 자녀수가 '1명'이라는 응답은 3.5%로 낮지만, 어머니의 1.9%보다 높았음.
- 1차년도(2008) 조사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어머니의 취업여부, 자녀의 출생순위 및 거주지역의 규모에 걸쳐 모두 동일한 응답 경향을 보임.

○ 성별에 따른 이상 자녀수

- 부모 모두 '딸·아들 구분 없이(모: 53.2%, 부: 51.7%)' 이상 자녀수를 생각한다고 하였음. 또한, 부모 모두 '딸·아들 구분해서(모: 39.5%, 부: 34.9%)', '잘 모르겠음(모: 0.2%, 부: 0.1%)', '구분 없이 동성으로(모: 1.3% 부: 1.7%)' 순으로 낮게 나타남.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 자녀의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걸쳐 모두 동일한 응답 경향을 보임.



[그림 4] 일반적인 이상적인 자녀수

- 부모의 이상 자녀수를 성별을 구분하여 질문하였을 때, 부모 모두 '아들 1명, 딸 1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아들 1명, 딸 2명'이 두 번째로 높은 성비로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16.8%, 어머니가 31.1%로 응답하여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높게 나타났음.

2) 후속출산의도

- 기대 자녀는 실제 출생 자녀수와 향후 출산 희망 자녀수를 합한 개념으로 완결 출산력의 의미를 가지며, 미래의 출산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임.

■ 후속출산 의도

- 후속출산 의도에 대해 '낳겠음'이라고 35.0%가 응답한 반면, 53.6%는 '낳지 않겠음'이라고 응답하였음.
- 앞으로 자녀를 더 '낳겠음'과 '낳지 않겠음' 모두 1차년도 조사에 비해 2차년도 조사에서는 증가하였고, '잘 모르겠음'은 2차년도 조사에서 감소하였음. 그러나 1차년도 조사가 출산 후 4개월에 실시되었으므로 2차년도 조사에서 '잘 모르겠음'이 감소한 것은 당연한 결과임.
-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후속출산 의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 그러나 첫째아의 어머니는 '낳겠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3.4%, 둘째아 이상의 어머니는 10.0%로 답하여, 자녀가 일반적으로 2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이상 자녀수와 비슷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표 11〉 후속출산 의도

단위: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낳겠음	28.0	35.0	35.7	35.2	63.4	10.0
낳지 않겠음	49.7	53.6	49.3	55.6	20.8	83.3
잘 모르겠음	22.2	10.9	14.7	9.1	15.5	6.7
이혼	-	0.1	0.3	0.0	0.2	0.0
기타	0.2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후속출산 시기

- 후속출산 의도가 있는 35.0%의 어머니들 중 출산 계획 시기에 대한 질문에 39.8%가 '1~2년

이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재 임신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9%이었음.

-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1~2년 이내'에 출산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2~3년 이내'에라는 응답이 취업모인 경우에는 22.5%, 비취업모는 '1년 이내'에 27.4%가 응답하였음. 이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후속출산을 지연시키는 요인임을 추정할 수 있음.

〈표 12〉 후속출산 시기

단위: %

구분	2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1년 이내(또는 현재 임신 중)	23.9	16.2	27.4	25.0	17.1
1~2년 이내	39.8	37.7	41.1	42.2	26.2
2~3년 이내	14.5	22.5	10.4	14.6	14.4
3년 이후	9.1	15.0	6.3	7.9	16.3
미정(또는 잘 모르겠음)	12.6	8.5	14.7	10.3	26.0
낳았음	0.1	0.0	0.1	0.1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후속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 후속출산 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는 '본인'이 7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응답은 남편 21.4%임.
- 친정과 시부모님 등을 포함하여 '주변 인물들'의 영향을 받은 어머니의 비율은 적었고, '부부'라는 응답도 1%였음. 취업모일 경우와 둘째아 이상의 경우에 더 후속 자녀 출산여부를 어머니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 모취업과 출생순위에 따라 후속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본인	71.5	74.4	70.1	65.6	75.5
남편	21.5	19.3	22.6	24.8	19.1
주변 인물들	7	6.3	7.3	9.6	5.4
계		100.0	100.0	100.0	100.0

- 추가적인 출산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모취업 여부와 후속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녀의 출생순위와 영향력을 미친 사람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

-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로는 '자녀 교육비용 때문에' 라는 응답이 27.4%로 가장 많았으며,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라는 응답이 24.7%로 나타남.
- 1차년도 조사에서는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자녀 교육비용 때문에' 순으로 나타나, 2차년도 조사와 비교해보았을 때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의 순서가 바뀌었음. 그러나 어머니들이 후속출산 의도를 가지지 않는 경우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자녀수 계획과 자녀 교육비용이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음.
- 취업모의 경우 '자녀 양육비용 때문에' 라는 이유가 비취업모의 2배가 응답하였는데, 이는 어머니의 취업으로 유급 도우미 등 대리양육비용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14〉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자녀 양육 비용 때문에 (아기 관련 생필품, 유급 도우미 비용 등)	5.7	8.2	12.3	6.6	11.8	7.4
자녀 교육 비용 때문에 (유치원/보육시설/학교 이용비용, 사교육 비용 등)	30.5	27.4	21.9	29.6	20.6	29.0
직장/학업 때문에	2.0	3.5	8.8	1.2	8.3	2.4
개인시간/여가 또는 자아성취를 위하여	4.5	4.8	4.6	5.0	4.1	5.0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33.8	24.7	25.8	24.4	2.6	29.7
나이가 많아서	7.1	6.7	5.7	7.2	14.1	5.1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출산 및 양육 등)	16.4	1.0	19.1	21.4	34.1	17.8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	0.9	0.4	1.1	2.0	0.6
모름/무응답	-	2.9	1.5	3.5	2.3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둘째아 이상의 어머니는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라는 이유가 첫째아에 비해 10배 이상의 응답율에 차이가 있었음. 또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라는 이유는 첫째아의 어머니가 둘째아 이상의 어머니에 비해 2배 정도 차이가 나타남.

3. 부모의 정신건강

1) 어머니, 아버지의 음주 및 흡연여부

부모의 특성 중에서 음주 및 흡연여부는 부모의 취향이나 선택을 넘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정서적 상태를 보여주는 요인이기에 부모의 양육 실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부모의 음주는 아동학대나 청소년의 문제 행동, 일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꾸준히 연구되고 있음. 특히,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의 음주는 정서학대와 성학대, 모의 음주는 방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 장에서는 영유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음주 및 흡연여부를 통계치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함.

(1) 어머니, 아버지의 음주

■ 어머니의 음주 여부

- 부모를 대상으로 평상시 음주 습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약 40.9%가 비음주자이고, 24.0%는 평소에 술을 마시나 임신과 모유수유 등의 이유로 현재 마시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5.2%는 마시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응답자 특성별로 취업 여부,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표 15〉 어머니의 음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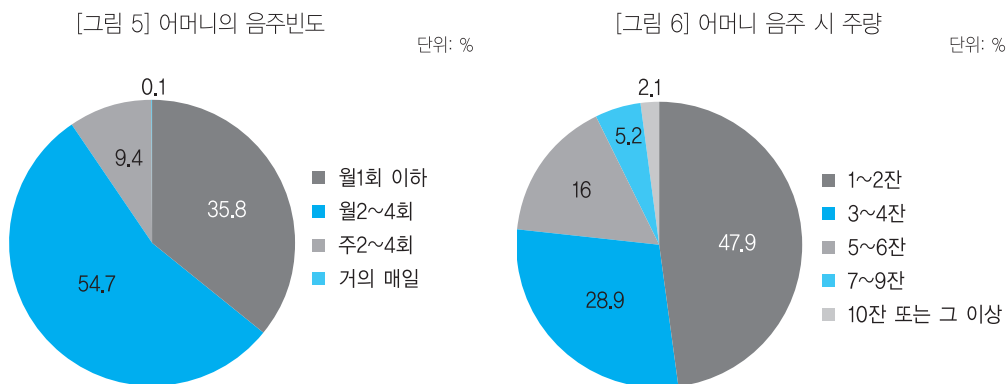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마심	35.2	40.2	32.7	32.6	37.5		35.4	34.3	36.3
평소에 마시나 임신, 수유 등으로 마시지 않음	24.0	18.7	26.5	28.6	19.7		22.8	25.5	23.5
마시지 않음	40.9	41.1	40.8	38.8	42.8		41.8	40.2	4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어머니의 음주 빈도 및 음주 시 주량

- 어머니의 음주 빈도는 월 2~4회 음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4.7%로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월 1회 이하라고 응답한 어머니가 35.8%로 나타남. 주 2~4회라고 응답한 어머니는 9.4%, 거의 매일 음주를 하는 어머니는 0.1%로 나타났음.
- 어머니의 음주 빈도에 관해서는 취업여부나 자녀의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 어머니 1회 음주 시 음주량에 대해 47.9%가 1~2잔에 응답하였으며, 3~4잔 마신다는 응답이 28.9%로 나타났음. 10잔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도 2.1% 었음. 음주 빈도 및 음주량에 대한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아버지의 음주 여부

○ 아버지의 음주 습관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의 78.6%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취업 여부, 자녀의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1차년도와 2차년도 비교해보면, 술을 마시는 아버지 비율은 79.0%로 2차년도 조사에서 다소 줄었음을 알 수 있음.

■ 아버지의 음주 빈도 및 음주 시 주량

○ 음주 빈도는 월 2~4회 마신다는 응답이 50.5%, 주 2~4회 마신다는 응답이 32.2%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거의 매일 마신다는 응답도 5.5% 나타났음

〈표 16〉 아버지의 음주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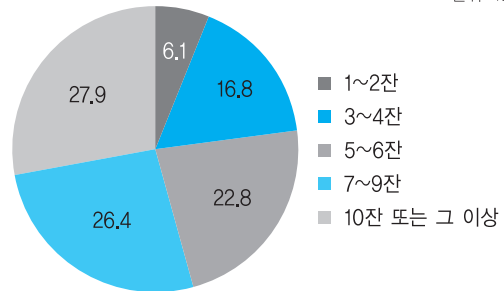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월 1회 이하	11.8	12.6	11.4	14.1	9.7	13.3	11.3	9.3
월 2~4회	50.5	51.7	49.9	53.0	47.8	48.7	51.8	51.3
주 2~4회	32.2	29.9	33.3	28.6	36.0	32.2	31.9	33.8
거의 매일	5.5	5.8	5.4	4.4	6.6	5.8	5.0	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집단특성별로는 해당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전체적인 응답 경향은 비슷하나, 월 2~4회 마신다는 응답이 첫째아인 경우 53.0%로 과반수가 넘었으나, 둘째 이상인 경우는 47.8%로 나타났음.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는 응답은 해당 아동이 둘째 이상인 아버지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음.

단위: %

- 조사대상 아버지의 음주 시 주량은 술 종류에 상관없이 10잔 이상 마신다는 응답이 27.9%로 가장 많았으며, 7~9잔 마신다는 응답이 26.4%로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1회 음주량이 적을수록 응답값도 적게 나타남.



(2) 어머니, 아버지의 흡연

[그림 7] 아버지의 음주 시 주량

- 부모의 흡연 여부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경우 1%를 제외하고는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어머니의 흡연 여부는 지역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에서 흡연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표 17〉 어머니의 흡연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피움	1.0	1.5	0.8	0.9	1.1	0.6	0.6	2.7
피우지 않음	99.0	98.5	99.2	99.1	98.9	99.4	99.4	9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전체의 52.8%가 흡연자였으며,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자녀가 둘째 이상인 경우 흡연자의 비율이 54.6%로 첫째아 50.8%에 비해 높았으며,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흡연 비율이 61.0%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18〉 아버지의 흡연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피움	52.8	52.1	53.3	50.8	54.6	51.5	50.8	61.0
피우지 않음	47.2	47.9	46.7	49.2	45.4	48.5	49.2	3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어머니 정신 건강

영아기는 생애 중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로 어머니가 제공하는 양육 환경은 이후 영아의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특히, 어머니의 정신 건강은 어머니 자신에 대한 인식과 영아와의 상호작용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 이 장에서는 어머니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 및 우울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정신 건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1) 자기 효능감

-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며, 자기 효능감을 통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지를 평가할 수 있음.

〈표 19〉 어머니의 자기 효능감

단위: 점

구분	1차 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성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 업모	첫째	둘째 이상	남아	여아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평균	8.90	9.24	8.95	9.36	9.08	9.38	9.15	9.30	9.18	9.22	9.42
표준편차	2.74	2.79	2.65	2.84	2.86	2.72	2.82	2.76	2.78	2.78	2.82

주: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부정적임을 의미함.

■ 자기 효능감의 측정과 전반적인 경향

-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Pearlin Self-Efficacy Scale을 선정하여 그 중 총 4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자기 효능감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4~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부정적임을 나타냄.

- 자기 효능감의 전체 평균점수는 9.24점이었으며 전체 평균 점수가 8.90점 이었던 1차년도(2008)의 연구 결과에 비해 증가하였음.
- 취업모의 평균 점수는 8.95점, 비취업모의 평균 점수는 9.36점이었으며, 두 집단 간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즉, 비취업모의 자기 효능감은 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자녀가 첫째인 경우의 어머니의 자기 효능감 평균 점수는 9.08점, 둘째 이상 자녀의 어머니는 9.38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즉, 둘째 이상 자녀의 어머니는 첫째 자녀의 어머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자기 효능감을 나타냈음.
- 한편, 자녀의 성별과 거주지의 규모에 따른 어머니의 자기 효능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2) 자아 존중감

■ 자아 존중감은 어머니 자신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가치의식을 의미하며, 이는 환경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경험하고 해석하여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됨.

■ 자아 존중감의 측정과 전반적인 경향

-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Rosenberg의 자아 존중감 척도를 선정하여 그 중 총 10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자아 존중감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0~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자아 존중감의 전체 평균점수는 25.22점이었으며 전체 평균이 30.20이었던 1차년도(2008)의 조사 결과에 비해 감소하였음.
- 취업모의 평균점수는 25.42점, 비취업모는 25.13점이었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즉,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의 자아 존중감이 높게 나타남.
- 첫째 자녀의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 평균 점수는 25.12점, 둘째 이상 자녀의 어머니는 25.31점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즉, 둘째 이상 자녀의 어머니가 첫째 자녀의 어머니보다 자아 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자녀의 성별과 거주지의 규모에 따른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표 20〉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

단위: 점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성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남아	여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30.20	25.22	25.42	25.13	25.12	25.31	30.01	29.82	25.29	25.15	25.22
표준편차	4.11	2.05	2.01	2.06	2.09	2.01	4.05	4.36	2.05	2.07	1.99

주.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함.

(3) 우울

- 우울은 슬픈 감정이나 침울한 정서 상태 뿐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복합 증상들 예컨대 에너지의 감소, 무기치감, 죄책감, 집중력 감소, 식욕과 체중 및 수면과 같은 정신 활동에서의 변화 등을 동반하는 증상이며(DSM-IV),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거리감을 두고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비일관적인 양육 행동을 보일 수 있으므로 영아기 어머니의 우울은 중요성을 가진.

〈표 21〉 어머니의 우울 정도(임상집단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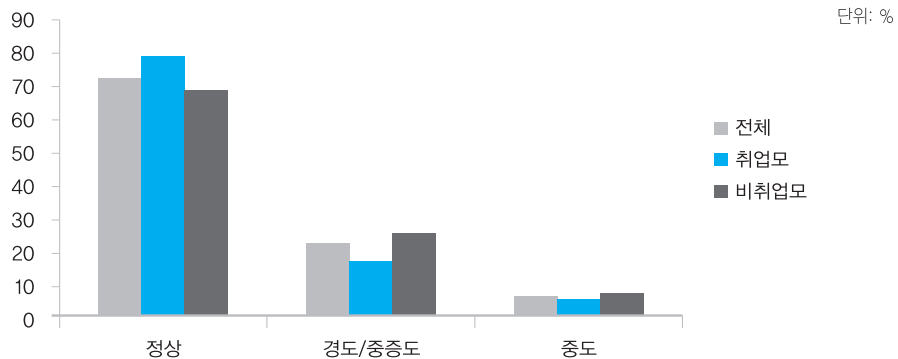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성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남아	여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정상	71.5	72.5	78.6	68.9	73.6	70.5	70.7	73.2	74.2	72.1	69.3
경도/ 중등도	22.0	22.1	16.8	24.9	21.3	23.3	23.1	21.6	20.6	22.9	24.1
중도	6.5	5.4	4.7	6.2	5.1	6.2	6.2	5.2	5.3	5.0	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우울의 측정과 전반적인 경향

-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K6(Kessler 6)를 선정하여 총 6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 우울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6~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6~13점은 정상수준, 14~18점은 경도/중등도(mild/moderate) 우울, 19~30점은 중도(severe) 우울로 분류됨.
- 우울의 정도를 정상, 경도/중등도와 중도로 나누어본 결과, 72.5%는 정상군에 속하는 반면, 22.1%는 경도/중등도 우울, 5.4%는 중도 우울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울 정도가 정상인 취업모는 78.6%, 비취업모는 68.9%로 나타나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우울 정도가 정상 수준이었음. 경도/중증도와 중도인 경우 모두 취업모 보다는 비취업모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음.
- 한편, 자녀의 출생순위와 성별, 거주지의 규모에 따른 어머니들 간의 우울 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우울정도의 차이

- <표 22>에서 보듯이, 우울의 전체 평균 점수는 11.53점이었으며 이는 1차년도(2008)의 어머니 우울의 전체 평균 점수인 11.67점 보다 약간 감소했음을 나타냄.
- 취업모의 우울의 평균 점수는 11.11점, 비취업모는 11.72점으로 비취업모의 우울점수가 높았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즉,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첫째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우울의 평균 점수는 11.33점, 둘째 이상 자녀를 가진 어머니는 11.72점으로 둘째 이상 자녀의 어머니가 첫째 자녀를 가진 어머니에 비해 우울의 점수가 높았음.
- 자녀의 성별이나 거주지의 규모에 따라서는 이러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음.

<표 22> 어머니의 우울 정도(평균)

단위: 점

구분	1차 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성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남아	여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11.67	11.53	11.11	11.72	11.33	11.72	11.61	11.46	11.43	11.63	11.55
표준편차	3.91	4.21	4.03	4.29	4.19	4.23	4.29	4.13	4.25	4.13	4.31

주: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함.

4. 부부관계

자녀양육에 있어서 생태학적 관점과 전생애적 관점이 강조되면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체계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핵가족에서 부부관계는 가족시스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 부부관계에 의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기분과 정서가 부부관계로부터 부모-자녀 관계에 전이되어 영유아발달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로 나타남. 이에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의 변인을 중심으로 부부관계의 특성을 살펴보았음. 부부관계는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의 두 변인을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질문하였고, 각각의 결과를 제시하였음.

1) 결혼만족도

■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4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응답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4~20점임.

- 부부의 결혼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아내가 15.50점, 남편이 17.16점으로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아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즉, 아내들에 비해 남편들이 결혼에 더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모 취업 여부, 자녀의 출생순위 및 거주지 규모에 따른 결혼만족도: 아내

- 취업모의 결혼만족도 점수는 15.61점,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 점수는 15.46점으로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취업모들과 비취업모들의 결혼만족도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음.
-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첫째 자녀일 때 15.78점, 둘째 자녀이상일 때 15.26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유의하였음.
 - 첫째 자녀의 어머니들의 결혼만족도가 둘째 자녀 이상인 어머니들의 결혼만족도보다 높았음.
- 거주지의 규모에 따른 아내의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모 취업 여부, 자녀의 출생순위 및 거주지 규모에 따른 결혼만족도: 아버지

- 아내가 취업한 경우 남편의 결혼만족도 점수는 17.08점, 아내가 취업하지 않은 남편의 결혼만족도 점수는 17.20점으로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아내의 취업여부에 따른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음.

-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첫 자녀일 때 17.49점, 둘째 자녀이상일 때 16.85점이고, 이 차이는 유의하였음.
 - 자녀가 하나인 아버지들의 결혼만족도가 자녀가 둘 이상인 아버지들의 결혼만족도보다 높았음.
- 거주지의 규모에 따른 남편의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2) 부부 갈등

■ 부부 갈등의 정도

-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 정도의 평균은 16.19점, 남편이 인지한 부부갈등 정도의 평균은 15.93점으로 나타남.
- 부부갈등의 평균 점수를 분석한 결과, 이 차이는 유의하였음.
 - 즉, 아내들은 남편들보다 부부갈등을 더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 취업 여부, 자녀의 출생순위 및 거주지 규모에 따른 부부 갈등: 아내

- 취업모의 부부갈등 점수는 16.19점, 비취업모의 부부갈등 점수는 16.20점이며, 분석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취업모들과 비취업모들의 부부갈등 정도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음.
-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부부갈등 정도는 첫째 자녀일 때 15.65점, 둘째 자녀이상일 때 16.66점이고, 분석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첫째 자녀의 어머니들은 둘째 자녀이상의 어머니들보다 부부갈등 정도가 낮았음.
- 거주지의 규모에 따른 아내의 부부갈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표 23〉 부부관계

단위: 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아내	남편	아내	남편
결혼만족도	평균	15.23	17.11	15.50	17.16
	표준편차	3.06	2.74	3.14	2.84
부부갈등	평균	15.92	15.05	16.19	15.93
	표준편차	6.21	5.49	6.10	5.64

주.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 부부간 갈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모 취업 여부, 자녀의 출생순위 및 거주지 규모에 따른 부부 갈등: 남편

- 아내가 취업한 경우 남편의 부부갈등 정도는 16.17점, 아내가 취업하지 않은 남편의 부부갈등 정도는 15.79점이며, 이 차이는 유의하였음.
 - 아내의 취업여부에 따른 남편의 부부갈등 정도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음.
-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아버지의 부부갈등 정도는 첫째 자녀일 때 15.46점, 둘째 자녀이상일 때 16.35점이고, 분석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첫째 자녀의 아버지들은 둘째 자녀이상의 아버지들보다 부부갈등 정도가 낮았음.
- 거주지의 규모에 따른 남편의 부부갈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표 24〉 모 취업 여부, 자녀의 출생순위 및 거주지 규모에 따른 부부관계

단위: 점

		구분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아내	결혼만족도	평균	15.61	15.46	15.78	15.26	15.65	15.43	15.30
		표준편차	3.10	3.15	3.29	3.00	3.13	3.07	3.35
	부부갈등	평균	16.19	16.20	15.65	16.66	16.08	16.20	16.44
		표준편차	5.86	6.23	6.11	6.06	6.42	5.80	5.96
남편	결혼만족도	평균	17.08	17.20	17.49	16.85	17.18	17.16	17.08
		표준편차	2.90	2.78	2.73	2.89	2.82	2.80	2.98
	부부갈등	평균	16.17	15.79	15.46	16.35	15.80	15.85	16.44
		표준편차	5.70	5.61	5.67	5.58	5.83	5.38	5.78

주.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 부부간 갈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5. 부모의 특성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발달해가는 영아기에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 특성을 들 수 있음. 부모의 양육특성은 자녀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특히 영아기는 생애 최초의 경험들이 누적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경험은 향후 발달에 기초가 됨. 이에 이 장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이에 선행하는 요인으로 양육지식과 양육신념 및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 부모의 양육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1) 자녀가치

■ 자녀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서적, 도구적 가치

- 어머니의 전체적인 자녀가치의 평균값은 3.53점, 아버지의 자녀가치 평균값은 3.82점이었음
- 하위척도별로는,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 평균값은 4.32점(1차년도 4.46점), 도구적 가치 평균값은 2.93점(1차년도 2.96점)이었으며, 아버지의 정서적 가치 평균값은 4.48점(1차년도 4.91점), 도구적 가치 평균값은 3.33점(1차년도 3.79점)으로 나타남.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정서적, 도구적 가치를 어머니들보다 더 인지함.

〈표 25〉 자녀가치: 부모

단위: 점

구분	자녀가치		정서적가치				도구적가치			
	어머니	아버지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문항평균	3.53	3.82	4.46	4.91	4.32	4.48	2.96	3.79	2.93	3.33
표준편차	0.58	0.57	0.54	1.39	0.58	0.52	0.79	1.81	0.77	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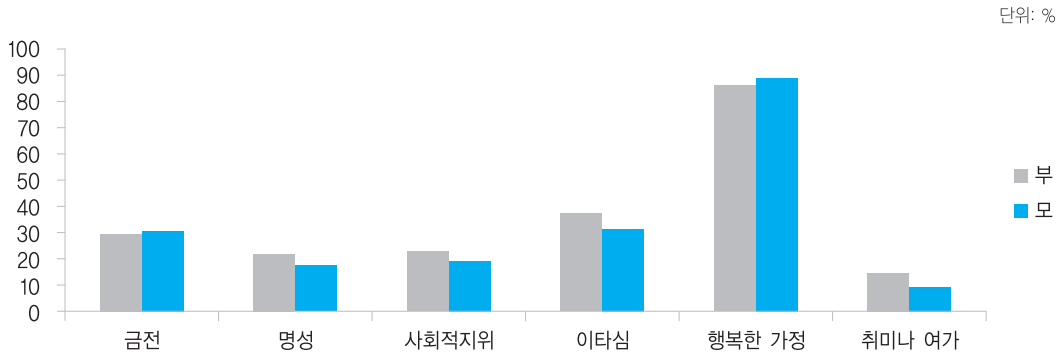
주.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것임.

2) 자녀기대

■ 양육지식의 전반적 수준

- 아버지의 86.6%, 어머니의 90.8%가 자녀가 행복한 가정을 갖기를 ‘매우 원한다’고 응답해, 부모 모두 자녀의 장래에서 행복한 가정을 가장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다음으로는 이타심과 금전적 성공이 그 뒤를 이었음.

○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더 기대하는 항목은 금전과 행복한 가정이었고,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기대하는 항목은 명성, 사회적 지위, 이타심 및 취미나 여가 생활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9] 부모의 자녀기대

3) 양육신념

■ 부모의 양육신념은 부모의 책임과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자질과 특성으로 나누어 조사함

○ 어머니의 48.2%, 아버지의 53.2%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에 동의함. 즉,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양육신념을 가지고 있음.

○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으로 질문한 11개 중 특히 중요한 것으로 부모 모두 ‘예의바른 생활습관’을 들었으며, 이어서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을 선택함. 부모 모두 가장 낮게 선택한 자질과 특성은 ‘이타심’이었음.

〈표 26〉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중복응답): 부모

단위: %

구분	예의바른 생활 습관	독립심	근면함	책임감	상상력	타인 포용 존중	검소함 저축	결단력 끈기	종교적 신념	이타심	어른 말씀 잘듣기	계
부	18.0	9.8	10.7	17.2	4.1	13.9	8.3	9.3	2.2	1.7	4.9	100
모	18.3	9.3	9.3	17.7	3.8	15.2	7.9	10.0	2.6	1.3	4.5	100

4) 양육실제(양육스타일)

- 양육스타일은 부모-자녀관계에서 주양육자가 보이는 실제 양육행동으로 향후 자녀와의 관계 및 자녀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
- 어머니의 모취업에 따른 전체 양육스타일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둘째 이상의 자녀 보다 첫째 자녀에게 보다 긍정적인 양육스타일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 양육스타일: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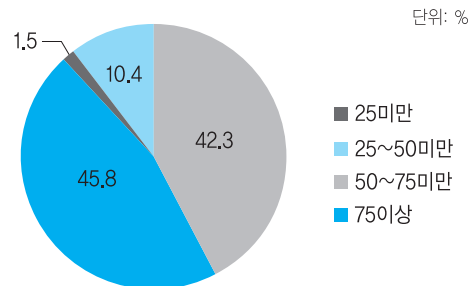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23.38	23.19	23.47	23.60	23.18	23.32	23.42	23.42
표준편차	2.96	2.94	2.97	3.02	2.89	2.95	2.94	3.03

주: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유형을 의미함.

5) 양육 지식

-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양육지식의 수준은 자녀의 행동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참조의 틀로서, 자녀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근거로 작용함.
- 전체 평균은 69.61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음.
- 정답의 비율은 75% 이상 정답을 알고 있는 비율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50~75% 이상은 전체의 42.3%에 해당하였음.



[그림 10] 어머니의 양육지식

6) 양육스트레스

-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 부모 자신의 심리적인 복직감은 물론, 자녀에 대한 태도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모 역할 수행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취업여부, 자녀의 출생순위, 거주지 규모에 따른 자녀양육스트레스

-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의 평균이 26.48로 비취업모의 평균점수인 27.70보다 낮았음.
 -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둘째이상 자녀의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 평균점수는 28.11로 첫째 자녀의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 평균점수는 26.40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Ⅲ. 아동특성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표본 아동은 모두 총 1904명으로 남아 962명(50.5%), 여아 942명(49.5%)이며 아동의 월령은 13개월에서 15개월이다. 아동특성의 경우 성별, 연령, 출생 순위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영아기 건강의 지표인 체중, 신장, 두위 등의 신체적 특성과 국가필수 예방접종 여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병력과 모유수유 등의 영역을 살핍. 아동의 생애초기 발달 수준과 특성은 아동의 이후 생애 경로에 누적적으로 반영되는 중요한 초기 지표임.

1. 아동의 건강 특성

아동의 건강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체중, 신장, 두위의 신체적 특성과 사고, 질병 등의 병력 관련 사항이며 예방접종과 모유수유 여부를 어머니 취업 여부, 출생 순위, 지역규모로 나누어 살핍.

■ 체중, 신장, 두위

- 체중, 신장, 두위는 영유아기 발달에 있어 기초적 지표로 간단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정보를 알려줌.

〈표 28〉 체중, 키, 두위 비교

구분 (단위)	평균	모취업		출생 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체중(kg)	10.12	10.24	10.06	10.09	10.14	10.08	10.12	10.12
신장(cm)	77.23	77.84	76.95	77.24	77.22	77.21	77.03	77.74
두위(cm)	46.02	46.34	45.87	45.96	46.10	45.96	46.03	46.12

- 취업모의 아동이 비취업모의 아동에 비해 체중이 더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순위, 지역 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키와 두위 역시 취업모의 아동이 더 키가 크고 머리둘레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국가필수예방접종

- 접종률이 결핵 99.4%, B형 간염 95.5%,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94.5%, 소아마비 94.6%로 대체로 높게 나타남. 단 1회도 접종시키지 않은 경우는 0.6 ~ 0.9%로 조사됨.
-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예방지침에 맞추어 접종한 비율이 다소 높음.

■ 건강 상태

- 아동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사고나 중독으로 인한 치료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경험 및 횟수에 대해 조사함.
- 전체 아동의 16.4%가 사고/중독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첫째아(18.9%)가 둘째 이상 자녀(14.1%)에 비해 이러한 치료 경험이 높게 나타남.
 - 사고/중독 횟수는 아동 1인당 평균 1.41건임.
- 전체 아동의 21.8%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병원 입원 경험이 있음.
 - 입원 횟수는 평균 1.3회, 입원기간은 평균 9.2일로 조사됨.
 - 조사일 기준으로 지난 2주간 통원 치료 횟수는 평균 0.81건으로 조사됨.

■ 모유 수유

- 1차년도(04개월) 조사에서 모유 수유 중이라고 응답한 62%의 가구 중 42.8%가 2차년도(12개월)에도 모유 수유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둘째 이상 자녀의 어머니가 첫째 자녀인 경우에 비해 수유율이 높게 나타남.

〈표 29〉 모유 수유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모유수유 중	42.8	32.8	46.3	36.6	48.5	44.5	42.5	39.5
모유수유 안함	57.2	67.2	53.7	63.4	51.5	55.5	57.5	6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모유 수유 중단 시기는 평균 9.83개월임.

– 비취업모(10.12개월)가 취업모(9.16개월)보다 약 1개월가량 더 수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유 수유를 중단한 이유는 '젓을 떼어야 할 시기가 되어서'라는 응답이 4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젓이 나오질 않아서' 23.9%,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낮시간 수유가 어려워서' 10.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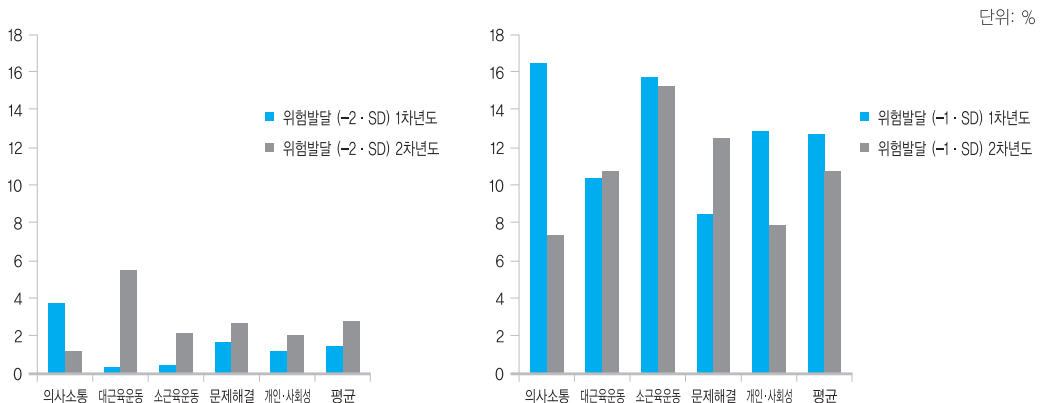
2. 아동의 발달

■ 아동의 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개의 발달검사 도구(K-ASQ, Denver II)를 사용함¹⁾.

■ K-ASQ 검사 결과

○ K-ASQ 검사 결과, 정상발달의 비율이 전체 5개 영역 평균 97.34%로 나타남. 위험 발달과 의심 발달로 분류한 결과, 위험발달 비율 2.66%, 저위험군 의심발달 비율 10.66%로 나타남.

– 2차년도 2009년 K-ASQ 검사 영역별 총점 평균 비교에 의하면 영아기 발달 위험성이 대근육, 소근육 운동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의사소통 영역에서 가장 낮았음.



[그림 11] K-ASQ 영역별 위험발달 · 의심발달 분포

1) (1) 한국의 부모 작성형 유아 모니터링 체계(K-ASQ)는 4~60개월의 영유아 대상의 조기 중재 아동 판별검사이고,
(2) 한국형 덴버 II는 0~만 6세 대상으로 해당 연령에 적합한 아동의 수행정도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임.

- 1차년도(2008) 결과(정상발달 98.56%, 위험발달 1.44%, 의심발달 12.72%)와 비교하면, 2차년도(2009)의 경우 위험발달 비율은 다소 증가하고 의심발달 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에 비해 2009년도의 위험/의심 발달 영역의 개수가 0개인 비율이 위험발달의 경우 다소 감소한 반면, 의심발달의 경우 다소 증가함.
-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K-ASQ 검사 결과를 비교하면, 대체로 취업모의 영아기 자녀가 비취업모에 비해 위험/의심 발달로 판별되는 비율이 다소 적음.
 - 모 취업여부에 따른 영아기 아동의 발달위험군 판별비율의 차이(비취업모/취업모)가 모 취업이 가져오는 환경변인, 즉 가구소득 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복합적인 것에 의한 것으로 추측됨.
 - 위험발달의 경우 개인-사회성 영역에서, 의심발달의 경우 소근육운동 영역에서 비취업모의 자녀가 취업모의 자녀에 비해 영유아기 위험/의심 발달 비율이 다소 많게 나타남.

〈표 30〉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K-ASQ 영역별 위험발달 · 의심발달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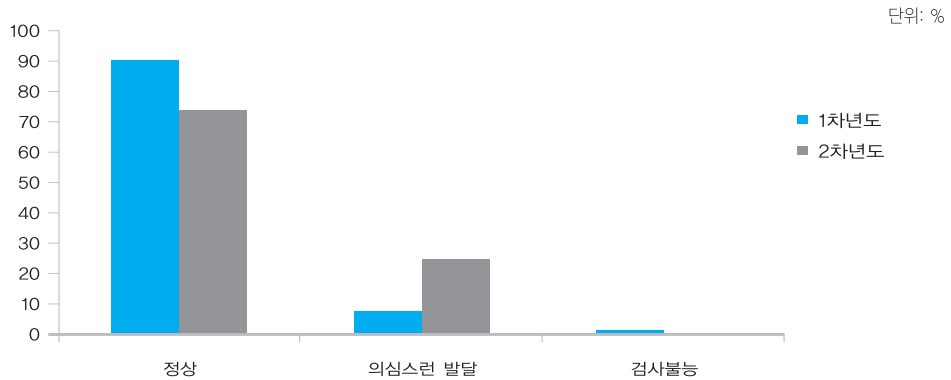
구분	위험발달 (-2 · SD)				의심발달 (-1 · SD)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취업모	비취업모	취업모	비취업모	취업모	비취업모	취업모	비취업모
의사소통	3.0	4.0	1.1	1.2	18	15.6	6.7	7.6
대근육운동	-	0.4	4.9	5.6	11.5	9.9	10.0	11.0
소근육운동	0.4	0.4	1.6	2.2	14.3	16.1	12.3	16.4
문제해결	1.3	1.7	1.8	3.0	9.4	8.0	9.8	13.6
개인-사회성	0.5	1.4	1.2	2.4	13.3	12.6	7.0	8.1

-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K-ASQ 결과를 비교하면, 첫째아의 경우가 둘째 이상보다 위험/의심 발달로 판별되는 비율이 다소 많음.
 - 위험발달에서 0개인 비율이 첫째 89.2%, 둘째 이상 90.6%로 둘째이상에서 약간 더 높음.
- 지역규모에 따른 K-ASQ 결과를 비교하면, 대체로 대도시 지역의 영아가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 비해 위험/의심 발달의 판별 비율이 다소 높음.
 - 위험 발달에서 0개인 비율이 읍면지역(93%), 중소도시(90.7%), 대도시(88%)의 순으로 나타남.

■ 한국형 Denver II 검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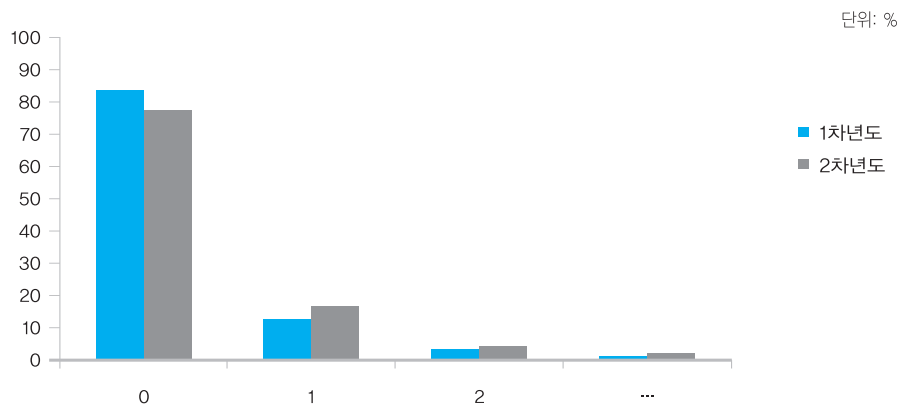
- 사회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의 4개 영역에 대한 정상-의심발달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정상 범주 74.2%, 의심스런 발달 25.8%로 나타남.

- 2008년 결과 (정상 90.7%, 의심발달 8.4%)와 비교하면,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의 의심발달 비율이 17.4% 증가함.



[그림 12] 덴버 II 최종 분포[정상-의심발달]

- 주의(cautioned) 항목개수의 분포는 0개 77.6%, 1개 16.7%, 2개 4.1%, 3개 1.1% 로 나타남. 1차년도 결과 대비, 영아의 월령이 1년 증가함에 따라 주의항목의 발견 비율이 다소 늘어난 경향을 보임.
- 지연(delayed) 항목개수 분포는 0개 76.1%, 1개 15.9%, 2개 3.9%, 3개 2.5% 로, 1차년도 결과 대비 영아의 월령이 1년 증가함에 따라 지연 항목의 발견 비율도 늘어남.



[그림 13] 덴버 II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

- 각 영역별로 지연항목이 0개인 비율이 운동발달(99%), 개인-사회성(92.9%), 언어발달(91.7%),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87.2%)순으로 나타나, 덴버 II 검사결과에 의하면 패널 아동의 대부분이 운동발달 영역에 지연항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덴버 II 발달검사 결과를 비교하면, 비취업모의 영아 자녀가 취업모에 비해 더 많은 의심발달 판정 비율을 보임.

– 취업모 자녀의 경우 정상 범주 79%, 의심스런 발달 21%, 비취업모 자녀의 경우 정상 범주 72%, 의심스런 발달 28%로 나타남.

–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덴버 II 주의 및 지연 항목개수의 분포 차이를 검증한 결과,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

– 아동의 출생순위 및 지역규모에 따른 덴버 II 검사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3. 기질

기질은 영아가 외부적 자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행동양식으로 표현되고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개별적인 반응 성향을 의미하며, 이러한 영아기 기질은 이후 발달 경로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 특히, 영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 행동은 상호 교류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며 이후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누적적이며 지속적인 영향력을 나타냄.

■ 영아의 기질은 타고난 선천적인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변인들 중의 하나로서 아동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변인이며 개인이 타고난 성향이 다른 환경적 요인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차를 유발하는 지를 알아보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 가능함.

■ 기질의 측정과 전반적 경향

○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EAS 기질척도(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ing Ratings)를 선정하여 그 중 총 10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 EAS 기질척도는 1세 영아부터 성인기까지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이고 부모평정형 EAS는 네덜란드,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타당화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므로 국제비교가 가능함.

– 기질의 하위영역은 정서성 5문항, 활동성 5문항이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각각 5-25점임. 정서성이 높다는 것은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냄을 의미하며, 활동성이 높다는 것은 아동이 움직이길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닌 다는 것을 의미함.

○ 아동 기질의 하위 영역 중 정서성은 평균 13.75점, 활동성은 평균 19.75점으로 활동성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정서성의 평균 점수가 13.60점, 활동성의 평균 점수가 16.05점이었던 1차년도(2008년)의 연구 결과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음.

〈표 31〉 기질: 총점 평균 비교

단위: 점

구분	정서성	활동성
평균	13.75	19.57
표준편차	3.80	2.87
최소값	5	8
최대값	25	25

■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기질

-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기질 중 정서성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자녀는 13.73점, 비취업모의 자녀는 13.77점으로 비취업모 자녀의 정서성 점수가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활동성의 경우, 취업모의 자녀는 19.94점, 비취업모의 자녀는 19.41점으로 취업모 자녀의 활동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1차년도(2008) 조사 결과에서는 취업모의 자녀 정서성 전체 평균 점수가 13.45점, 활동성이 16.20점으로 나타났으며 비취업모의 경우 정서성 13.65점, 활동성 16.00점으로 나타났음. 즉, 1차년도(2008)와 비교해 볼 때, 2009년 한국아동패널의 취업모, 비취업모 자녀의 정서성, 활동성 점수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표 32〉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기질

단위: 점

영역	정서성				활동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취업모	13.73	4.11	5	25	19.94	2.79	8	25
비취업모	13.77	3.66	5	25	19.41	2.90	10	25

■ 성별에 따른 기질

- 성별에 따른 정서성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남아 13.50점, 여아 13.58점으로 여아가 조금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활동성의 경우, 남아는 19.79점, 여아는 19.26점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활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음.

〈표 33〉 성별에 따른 기질

단위: 점

영역	정서성				활동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남아	13.50	3.05	5	25	19.79	2.89	8	25
여아	13.58	3.22	5	25	19.26	2.99	5	25

■ 출생순위에 따른 기질

- 출생순위에 따른 정서성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자녀의 출생순위가 첫째아인 경우 13.67점이었으며 둘째이상인 경우 13.83점이었음. 활동성의 경우, 자녀가 첫째인 경우 19.91점으로 둘째 이상인 경우의 19.27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음.

〈표 34〉 출생순위에 따른 기질

단위: 점

영역	정서성				활동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첫째	13.67	3.87	5	25	19.91	2.90	8	25
둘째 이상	13.83	3.73	5	25	19.27	2.81	10	25

■ 지역규모에 따른 기질

- 지역규모에 따른 정서성을 살펴보면, 읍면지역 13.79점, 대도시 13.77점, 중소도시 13.72점 순으로 나타남. 활동성의 경우, 중소도시 19.71점, 대도시 19.51점, 읍면지역 19.42점 순으로 나타남. 한편, 지역규모에 따른 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표 35〉 지역규모에 따른 기질

단위: 점

영역	정서성				활동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대도시	13.77	3.80	5	25	19.51	3.00	8	25
중소도시	13.72	4.10	5	25	19.71	2.70	10	25
읍면지역	13.79	3.00	6	22	19.42	2.91	1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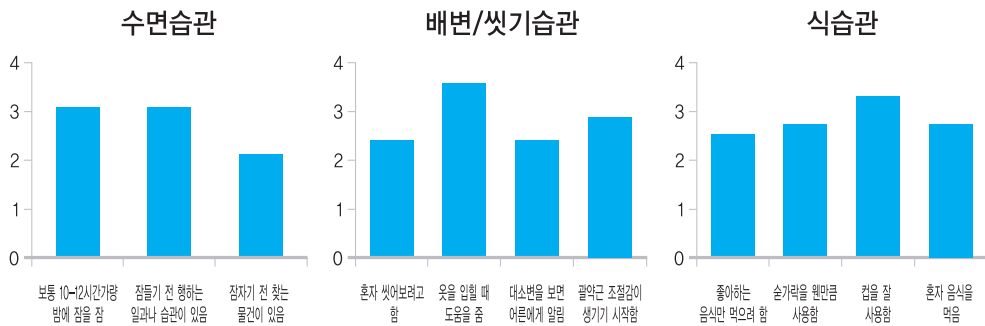
4. 기초생활습관

습관은 일정한 행동이 반복되어 주위환경에 적응해가면서 형성되어지는 행동의 패턴으로서 영아기의 기본습관은 이 시기 몸에 익혀야할 과업의 하나임. 기본습관의 형성은 건강을 유지함과 동시에 자립심과 독립심을 기르는데 기본이 됨.

■ 기초생활습관

- 기초생활습관(Developmental Profiles-Daily Routines)은 1~4개월 영아가 완수하여야 할 기초 과업 중 수면, 식습관, 배변/씻기 습관에 대해 조사함.
- 수면 습관(3문항), 식습관(4문항), 배변/씻기 습관(4문항) 총 11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중 하나로 응답하도록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함.
- 수면습관에 대한 문항 중 '보통 10~12시간가량 밤에 잠을 잠' 문항이 3.1점으로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고, 식습관 문항 중 '컵을 잘 사용함'이 3.3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배변/씻기 습관에 대한 문항 중 '옷을 입힐 때 도움을 줌'이 3.59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단위: 점



[그림 14] 기초생활습관

■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기초생활습관 수준

-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에 기초생활습관의 차이를 영역별로 살펴봄.
- 수면습관 중 '잠자기 전 찾는 물건이 있음'에서 취업모의 자녀가 비취업모의 자녀보다 유의하게 평균 점수가 높음.

- 식습관 중 ‘숟가락을 웬만큼 사용함’에서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자녀가 숟가락을 웬만큼 사용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배변/씻기 습관 중 ‘혼자 씻어보려고 함’에서만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자신의 자녀가 혼자 씻어보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출생순위에 따른 기초생활습관 수준

- 수면습관에 대해, 첫째아가 둘째 이상에 비해 ‘잠들기 전 행하는 일과나 습관이 있음’, ‘잠자기 전 찾는 물건이 있음’에서 평균점수가 높은 반면, ‘보통 10-12시간가량 밤에 잠을 잠’에서는 둘째 이상이 첫째아보다 평균점수가 높음.
- 식습관에 대한 문항 중 ‘숟가락을 웬만큼 사용함’, ‘컵을 잘 사용함’, ‘혼자 음식을 먹음’에 대해 둘째아 이상이 첫째아에 비해 평균 점수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 배변/씻기 습관 중 ‘옷을 입힐 때 도움을 줌’, ‘괄약근 조절감이 생기기 시작함’에 대해 첫째아인 경우가 둘째이상보다 평균 점수가 높음. 반면, ‘혼자 씻어보려고 함’, ‘대소변을 보면 어른에게 알림’에서는 둘째아인 경우가 첫째아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지역규모에 따른 기초생활습관 수준

- 수면습관에 대해 ‘잠자기 전 찾는 물건이 있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대도시나 중소도시가 읍면지역에 비해 자녀가 잠자기 전 찾는 물건이 있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식습관에 대한 4개 문항 중 ‘숟가락을 웬만큼 사용함’과 ‘혼자 음식을 먹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배변/씻기 습관 중 ‘혼자 씻어보려고 함’과 ‘괄약근 조절감이 생기기 시작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즉, 중소도시인 경우가 대도시와 읍면지역에 비해 씻기 영역의 ‘혼자 씻어보려고 함’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냄. 또한 읍면지역과 중소도시가 대도시에 비해 ‘괄약근 조절감이 생기기 시작함’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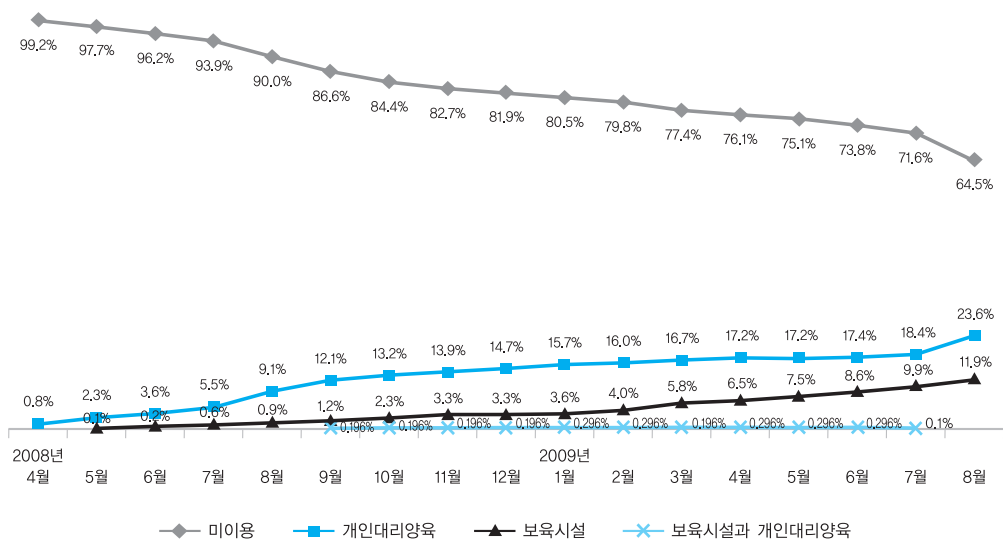
IV.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우리나라의 영아기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영아기 육아지원 서비스의 종류는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보육시설을 비롯하여 놀이학교와 각종 학원 등이 있음. 이러한 기관 외에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음. 이에 이 장에서는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와 이용하지 않는 이유, 육아지원기관 외 서비스 이용 여부와 내용, 비용, 향후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계획을 살펴보고자 함.

1. 서비스 이용 현황

■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자녀가 어릴수록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어린 연령일수록 보육시설과 같은 기관을 이용하기보다 조부모, 기타 친인척, 유급·무급 도우미와 같은 개인 대리양육자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를 돌보는 주양육자는 아이의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부모의 직접 양육에서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음. 만2세까지는 개인 대리양육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보육시설과 같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어남.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대리 양육자와 보육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비율도 소수 있음.



[그림 15]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 현재 주 양육자

○ 낮 시간 주양육자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의 경우, 1차년도는 84.4%였으나, 2차년도에는 72.3%로 나타남. 부모 외 대리 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는 1차년도는 15.6%, 2차년도에는 27.7%의 가구가 개인 대리 양육, 보육시설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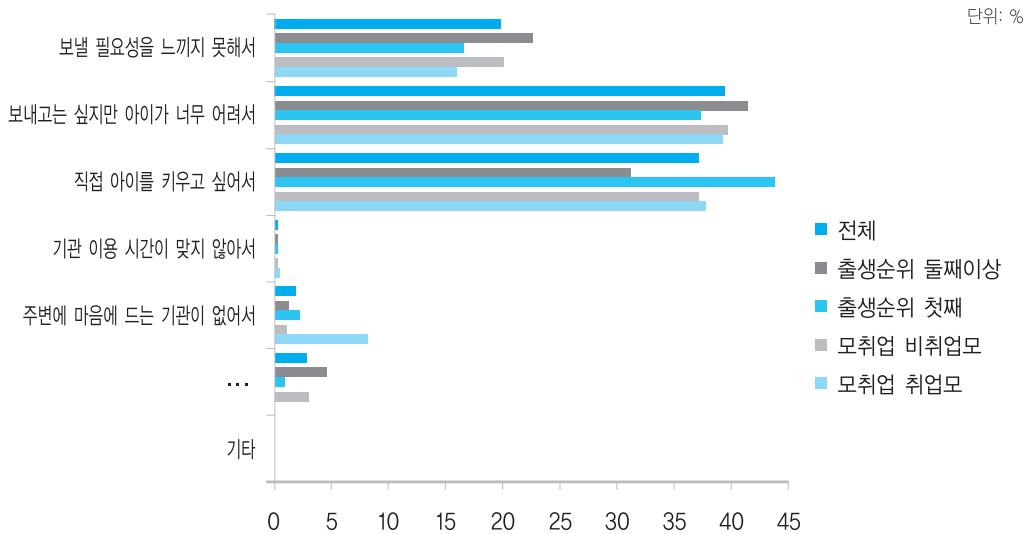
〈표 36〉 주 양육자

단위: %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어머니	84.4	72.3	20.6	96.6	71.2	73.3
부모 외의 대리양육자	15.6	27.7	79.4	3.4	28.7	2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육아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

○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양육한다고 응답의 대상(72.9%)을 분석한 결과, '보내고는 싶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서' 라는 응답이 전체의 38.6%,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라는 응답이 36.3%로 나타남. 이 외에도 '보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가 19.5%로 나타나 육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어머니의 의사결정이 주된 이유였음.



[그림 16] 육아지원서비스 미 이용 이유

2. 개인 대리양육

개인 대리양육이란 부모 외의 대리양육자가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개인 대리양육은 자녀의 연령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주요 변인인 것으로 조사됨.

즉, 자녀가 성장하면서 점차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보다는 개인대리양육자 또는 보육시설과 같은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취업모는 직접 양육보다는 육아지원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이 장에서는 개인 대리양육의 이용 현황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1) 개인 대리양육자 이용 이유

- 보육시설 대신 개인 대리양육을 선택한 이유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라는 응답이 54.2%로 가장 많고, 다음은 '개인 대리 양육이 더 믿음이 가서' 라는 응답이 32.6%로 나타남.

2) 개인 대리양육자의 제 특성

- 개인 대리양육자와의 관계

○ 외할머니 46.2%, 친할머니 34.3%, 비친인척 육아도우미 13.2% 순임.

○ 비친인척 육아도우미의 구인 경로를 보면, 주변의 소개가 39.3%로 가장 많았고, 평소에 알던 사람인 경우도 15.7%로 약 55% 정도가 주변의 인적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 대리 양육자 거주지

○ 대리양육자의 집에 자녀를 낮 시간 동안 맡기는 형태가 32.5%로 가장 많았고, 함께 살면서 아동을 돌보아준다는 응답이 29.0%로 두 번째로 높음.

■ 개인 대리 양육자 성별 · 학력 · 결혼상태 · 국적

○ 대리양육자의 성별은 99.1%가 여성이며(비친인척의 경우 100% 여성), 남성의 경우는 조부에 의한 대리양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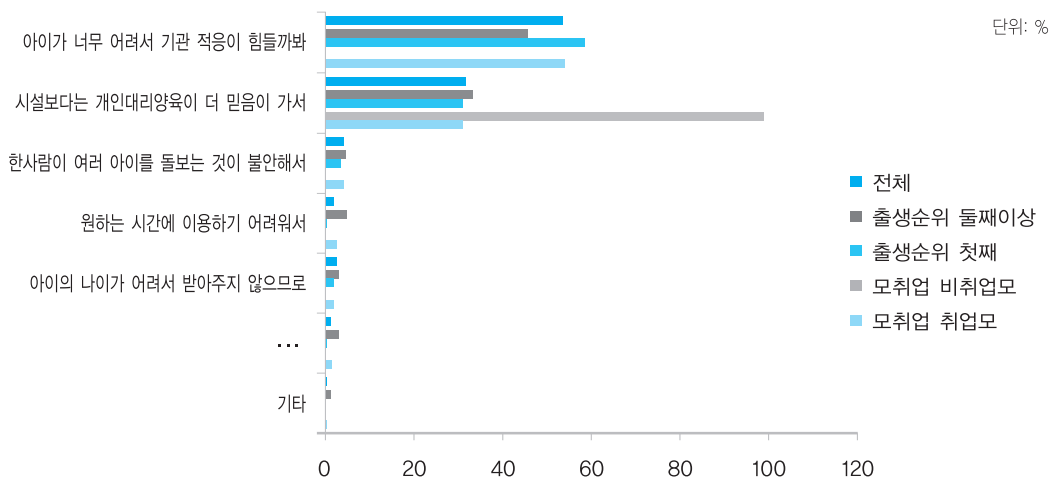
○ 대리양육자의 학력은 중졸 이하 48.6%, 고졸 46.8%로 대부분이 고졸 이하임.

○ 대리양육자는 83.1%가 결혼을 했으며, 98.5%가 자녀양육 경험이 있음. 국적은 한국인이 98.4%로 가장 많고 조선족과 기타외국인이 1.4%, 0.2%를 차지함.

3) 개인 대리양육 이용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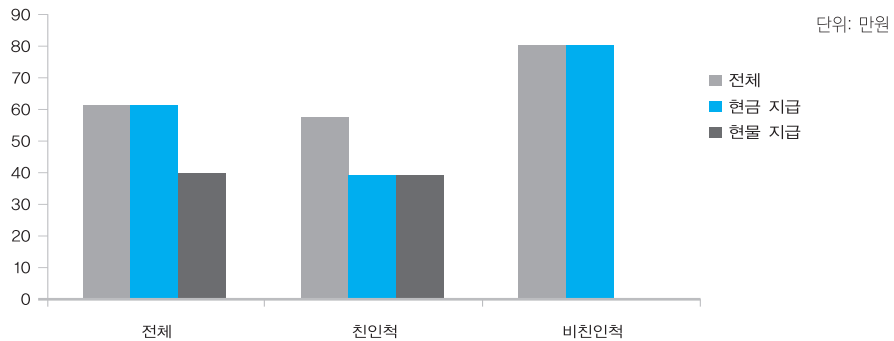
■ 대리양육자 변경 횟수: 대다수 가구(86.3%) 한번 결정한 대리양육자는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용 기간: 평균 이용기간은 5.29개월(친인척: 4.88개월, 비친인척: 5.77개월)임.



[그림 17] 개인 대리 양육 이용 이유

- 이용 빈도: 주중에만 이용하는 경우가 63.0%로 가장 많고, 주말을 포함하여 6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33.9%임. 비친인척의 경우 주중 및 규칙적인 양육을, 친인척의 경우 주말을 포함한 장시간 및 불규칙한 이용을 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옴.
- 이용 시간: 평균 11.04시간. 최소 40분 이상 최대 23.97시간으로 나타나 거의 24시간을 맡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 비용: 평균 61.37만원. 친인척의 경우 57.50만원, 비친인척의 경우 80.38만원으로 비친인척의 이용비용이 약 23만원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남. 친인척의 경우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불방식은 89.4%가 정기적으로 지불한다고 응답함.



[그림 18] 개인 대리 양육자 이용비용

4) 개인 대리양육 이용 만족도

■ 이용 부담도

- 가구의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적당하다는 응답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부담되는 편이라는 응답도 32.9%로 높게 나타남.
- 이용비용 부담도는 친인척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비친인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부담도가 크게 나타난 것은 대다수의 개인 대리양육자가 아동의 조부모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됨.

■ 이용 만족도

- 비교적 만족이라는 응답이 56.7%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도 35.3%로 나타나 응답자 대다수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친인척 개인 대리양육자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92.1%로 비친인척 개인 대리양육자의 만족도 89.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3. 보육시설

국공립, 민간, 가정 등 보육시설의 설립 유형별로 인적, 물리적 보육환경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음. 이러한 설립 유형별 차이는 이용 보육시설 선택 시 부모의 선호도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고,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아동의사회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함.

1) 보육시설 이용 이유

- 전체 응답자의 31.8%가 ‘개인 대리양육자를 고용하는 비용보다 부담이 덜 되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25.3%를 차지해, 개인 대리양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의 특성이 주요 선택이유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표 37〉 보육시설 이용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개인 대리양육자를 구하기 힘들어서	15.0	17.5	5.4	22.1	11.4	15.3	12.0	21.0
개인 대리양육자를 고용하는 비용보다 부담이 덜 되어서	31.8	31.0	35.5	35.1	30.0	27.7	41.4	19.4
개인 대리양육자를 믿을 수 없어서	5.1	5.5	3.5	6.1	4.6	6.6	4.1	4.2
또래와 어울릴 수 있으므로	16.2	14.0	23.5	12.2	18.3	19.1	13.3	16.6
교육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5.3	23.8	30.0	18.3	28.9	22.9	25.1	30.6
기타	6.6	8.2	-	6.3	6.8	8.5	4.0	8.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 취업모의 경우, 개인 대리양육자에 대한 차선택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한 비중이 크게 작용했던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 또래와의 경험 23.5%, 교육적 도움 30.0%와 같이 자녀교육 측면에서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이용하는 보육시설 제 특성

■ 설립유형

- 가정보육시설의 이용률이 6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민간보육시설 이용이 30.5% 순으로, 이는 1차년도와 유사한 결과임.

〈표 38〉 보육시설 설립 유형

단위: %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국공립	5.1	3.6	3.8	3.1	2.4	4.4	6.7	-	4.2
기타 법인	1.8	2.3	2.3	2.2	1.0	3.1	3.4	0.9	2.7
법인 외(단체)	2.4	1.6	1.9	-	4.2	-	0.7	-	6.4
민간 개인	27.0	30.5	30.5	31.2	23.1	35.0	38.3	23.7	27.8
가정(놀이방)	63.7	61.9	61.4	63.5	69.2	57.5	50.9	75.4	5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평가인증 여부

- 1차년도 조사 시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64.5%가 미인증 상태였던 반면, 2차년도 조사 시에는 57%가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41.2%가 평가인증 과정 중에 있거나 혹은 받지 않은 시설로 나타남.

■ 입지 조건

-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주변 환경은 일반 아파트 지역인 경우가 71.2%로 가장 많았고, 일반 주택 지역이 21.2%, 상가·회사 지역이 6.1%를 차지함.

3) 보육시설 이용 실제

■ 보육시설 변경 횟수

- 대다수(88.0%)가 처음 선택한 기관을 변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용 빈도

- 개인 대리양육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주중 5일간 이용한다는 응답이 85.7%로 가장 많았으며, 토요일 까지 이용한다는 응답은 13.3%임.

■ 이용 기간

- 보육시설을 이용한 기간은 9.64개월로 최소 1개월부터 15개월까지 이용함.
- 취업모의 경우 9.14개월로 비취업모의 12.05개월에 비하여 이용 기간이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재)취업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됨.

〈표 39〉 보육시설 이용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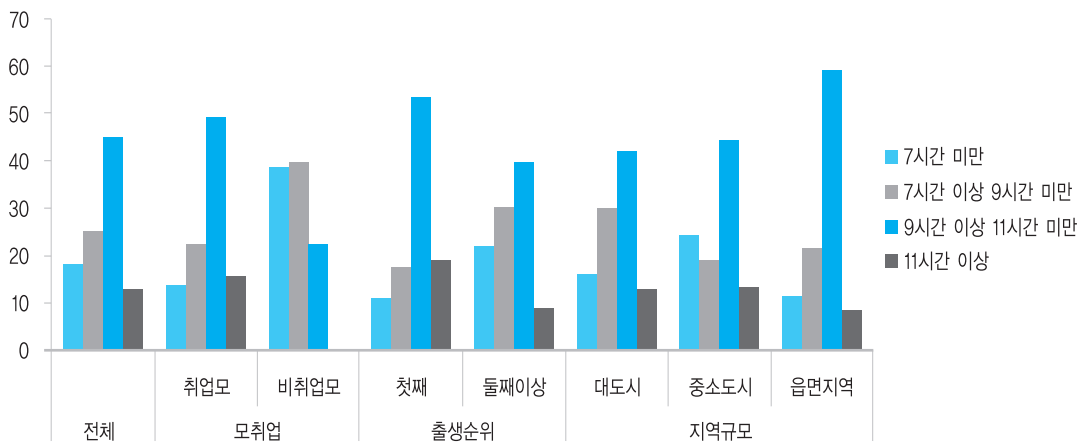
단위: 개월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9.64	9.14	12.05	9.90	9.49	9.63	8.87	11.21
표준편차	3.68	3.69	2.57	3.64	3.70	3.58	3.96	2.65
최소값	1	1	5	3	1	1	2	3
최대값	15	15	15	15	15	15	15	15

■ 이용 시간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은 평균 8.76시간으로, 9~11시간이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7~9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도 25.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취업모의 경우 평균 9.11시간으로 비취업모의 7.09시간에 비하여 이용시간이 길었으며, 출생순위에 서는 첫째인 경우가 9.29시간, 둘째 이상이 8.46시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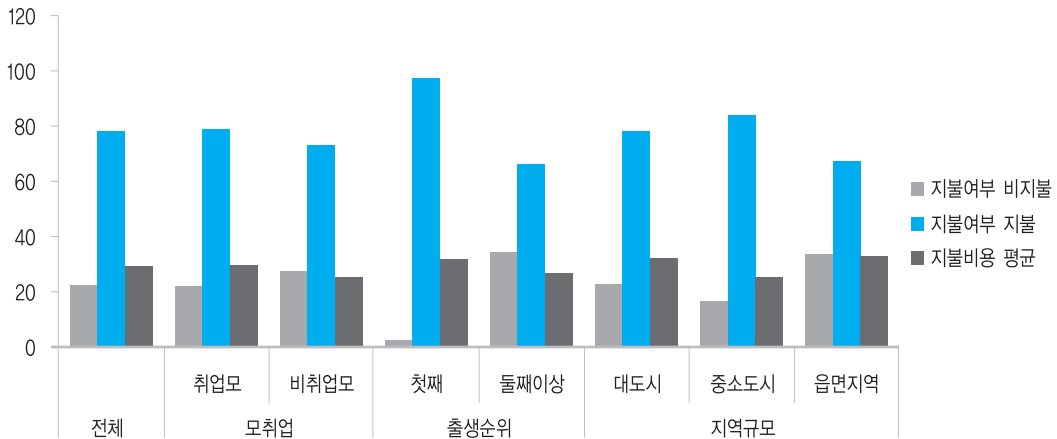


[그림 19] 보육시설 이용 시간

■ 이용비용

- 평균 28.85만원이며, 보육료를 면제받는 경우가 전체의 22.4% 차지함.
-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경우 비용을 면제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서도 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 출생순위에서는 첫째인 경우 비지불 경우가 2.5%인데 반해, 둘째 이상의 경우 33.9%가 보육료를 면제 받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의 영향인 것으로 사료됨.

단위: 만원



[그림 20] 보육시설 이용비용

4) 보육시설 이용 시 정부지원서비스 및 만족도

■ 지원 여부 및 지원 이유

- 일부 감면이 38.1%로 가장 많고, 아무런 혜택 없음이 33.5%, 전액면제 28.4% 순으로 조사됨.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전반적으로 보육비 지원 혜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지원 이유는 두 자녀 이상이 34.3%, 차등보육료 지원이 33.4% 순임.

■ 이용비용 부담도

- 가구의 생활수준에 비추어볼 때, 보육시설의 이용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43.5%로 가장 많음.

○ 취업모의 51.7%, 비취업모의 62.5%가 부담된다고 응답,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이용비용 부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용 만족도

○ 비교적 만족 61.7%, 보통 18.5%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5점 척도 환산시 3.83점).

V. 지역사회 특성

현 거주지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평가하는지는 향후 이사 여부 등 자녀 양육의 물리적 환경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부모가 평가한 현 거주지의 특성이 실제로 아동의 성장 발달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

1. 육아지원기관 및 학원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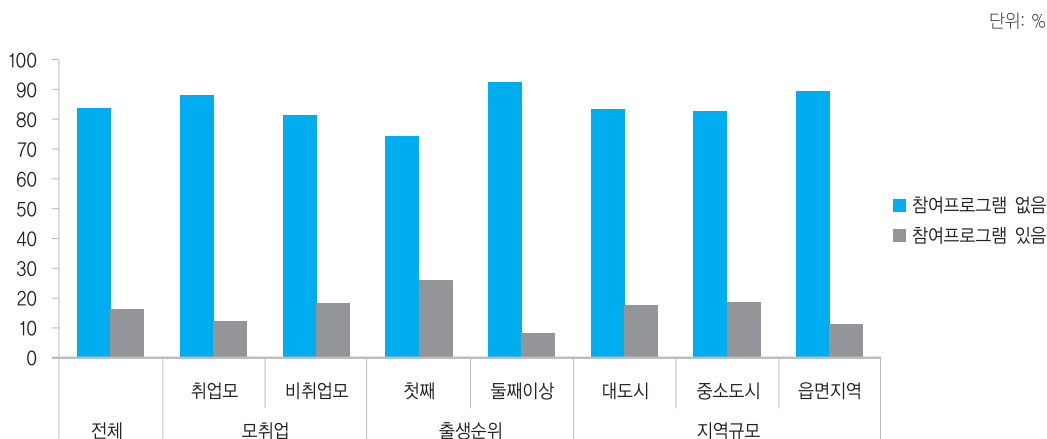
■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이용 여부

- 개인 대리 양육이나 보육시설 외에 아동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아동의 16.4%가 정기적으로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함.
- 비취업모의 경우 18.5%로 취업모의 12.0%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이 첫째인 경우 25.8%의 아동이 정기적인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및 기관을 이용하는 반면 둘째이상의 경우 7.8%만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함.
-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17.2%, 중소도시 18.0%가 정기적으로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읍면지역에서는 10.8%만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이용 수

- 정기적으로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1개에서 4개까지 평균 1.25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음.
- 취업모의 경우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 1~4개까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음.

○ 첫째 아동일 경우 평균 1.28개의 프로그램으로 둘째 이상의 아동인 경우 1.16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약간 많은 수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임.



[그림 21]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이용 여부

○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읍면 지역의 경우 1.31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도시에서는 1.26개, 대도시의 경우 1.23개로 지역규모가 클수록 적은 수의 프로그램을 이용함.

〈표 40〉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이용 수

단위: 개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1.25	1.25	1.26	1.28	1.16	1.23	1.26	1.31
표준편차	0.55	0.43	0.58	0.55	0.55	0.46	0.65	0.46
최소값	1	1	1	1	1	1	1	1
최대값	4	2	4	4	4	3	4	2

■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내용

○ 이용 중인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같은 비중으로 함께 하는 통합 프로그램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감각·조작 프로그램은 31.8%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 외에도 음악 프로그램 이용률이 18.8%로 비교적 많았으며, 한글, 외국어, 과학, 수학 등의 프로그램도 이용 중임.

- 취업모와 비취업모는 모두 통합 프로그램과 감각·조작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모의 경우 한글 6.0%, 외국어 1.7%, 수학 1.4%, 과학 0.6%로 학문적인 내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비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출생 순위에 따라서는 첫째아와 둘째 이상의 아이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통합 프로그램과 감각·조작 프로그램을 1, 2순위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유사한 비율로 프로그램 내용을 선택해 사용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한글(3.8%), 외국어(1.1%), 수학(0.7%) 등의 교과과정 프로그램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읍면지역의 경우 체육(11.1%)과 같은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함.

〈표 41〉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내용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한글	2.5	6.0	1.5	2.3	3.3	3.8	1.7	1.0
외국어	1.0	1.7	0.8	0.8	1.6	1.1	1.3	-
미술	4.5	-	2.0	1.7	1.2	0.8	0.4	6.6
음악	18.8	16.2	19.4	18.4	19.9	19.8	17.3	19.4
체육	7.1	9.1	6.5	6.5	9.0	7.5	5.0	11.1
과학	0.1	0.6	-	-	0.6	-	-	1.0
수학	0.3	1.4	-	0.4	-	0.7	-	-
감각·조작	31.8	18.9	35.5	33.0	28.0	33.7	29.8	31.4
통합	36.8	46.0	34.2	36.9	36.4	32.4	44.5	2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월별 참여 비용

- 정기적으로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월별 이용비용은 무료에서부터 최대 46만원까지 지불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6만원 정도임.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주 1~2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회당 이용비용은 1만원 5천원 안팎으로 계산됨.
- 비취업모의 경우 6.22만원으로 취업모의 6.05만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첫째 아동의 경우 평균적으로 6.63만원을 사용하여 둘째 이상의 출생아의 4.87만원에 비하여 비교적 고가를 지불함. 지역규모에 있어서도 대도시의 경우 5.58만원을 지불하는데 반해 중소도시 6.28만원, 읍면지역 8.26만원으로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어머니의 취업 유무,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있어 유의한 통계적 차이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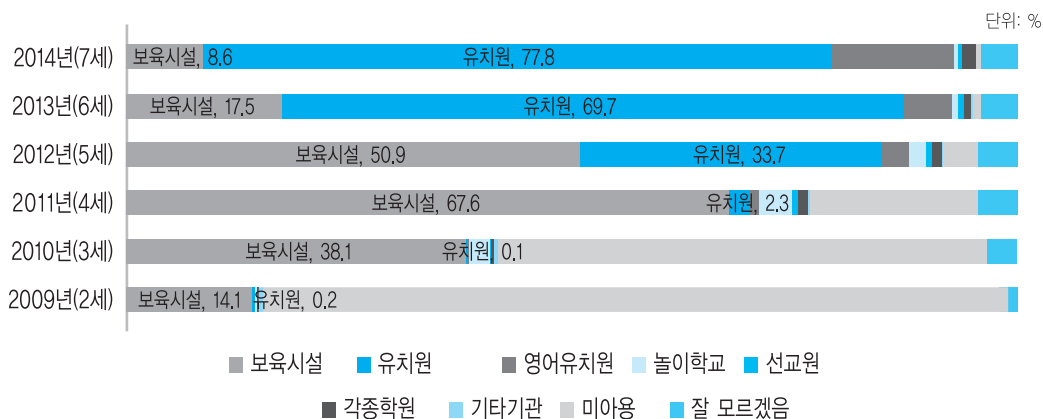
〈표 42〉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월별 참여 비용

단위: 만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6.19	6.05	6.22	6.63	4.87	5.58	6.28	8.26
표준편차	6.47	4.99	6.86	6.88	4.77	5.43	5.75	11.00
중위수	4.00	4.00	4.00	4.00	3.00	4.00	4.00	5.00
최소값	0	0	0	0	0	0	0	0
최대값	46	38	46	46	38	41	36	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기관/시설 이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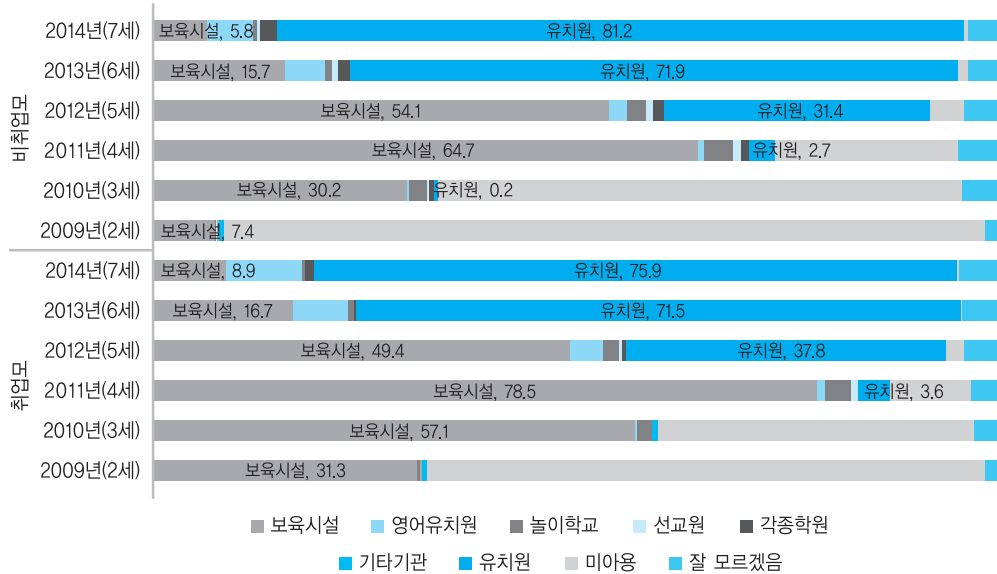
- 아동의 연령이 대다수 2세가 되는 2009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육아지원 기관 및 학원 시설 등의 이용 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 2세에서 3세까지는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계획하는 비율이 과반수(2세: 83.4%, 3세: 54.7%)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비율은 아동의 성장에 맞추어 점차 감소함.
- 대다수의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에 있어 5세까지는 보육시설을 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5세부터 유치원을 이용할 것이라는 비율이 늘어남. 즉, 5세를 중심으로 대다수의 아동이 보육시설에서 유치원으로 이용 기관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됨.
- 각종 학원의 경우 다소 일률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학원의 범주가 미술, 태권도와 같은 예체능에서 교과 교육적 성격을 갖는 곳까지 다양한 것에서 비롯됨.



[그림 22] 기관/시설 이용 계획

■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기관/시설 이용 계획

단위: %



[그림 23] 모취업 여부에 따른 기관/시설 이용 계획

-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육아지원 기관/시설 이용 계획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5세를 기점으로 보육시설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유치원을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아짐. 전반적인 경향에 있어 취업모의 경우 비취업모에 비해 보육시설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취업모의 경우 유치원에 비해 비교적 장시간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2. 공공여가 시설 및 문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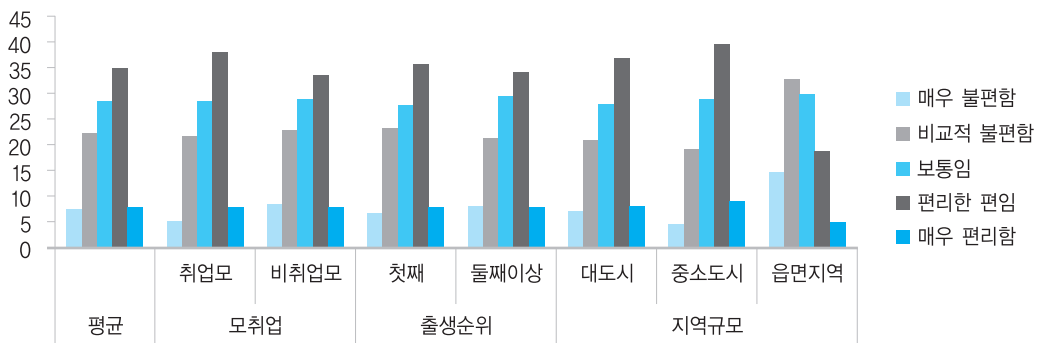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공공 여가 공간이나 시설,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한지에 대해 조사함.

1) 공공 여가 시설

■ 공공 여가 시설 및 공간 이용 편리성

- 공공여가시설이나 공간 이용 편리성에 대해서는 편리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6%로 가장 많았음.
- 5점 척도로 점수화했을 때에는 평균 3.13점이었음.
- 지역규모에 따라 중소도시 3.29점, 대도시 3.19점, 읍면지역 2.66점으로 읍면지역에 보육시설, 유치원, 사교육 시설에 이어 공공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그림 24] 공공 여가 시설 및 공간 이용 편리성

2) 문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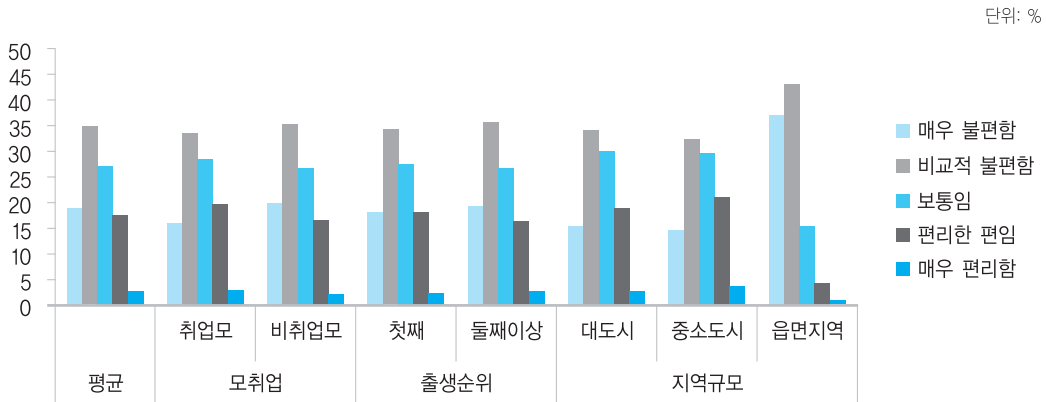
■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은 불편한 편이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음.
- 특히 읍면지역에서는 불편한 편이라는 응답이 42.9%, 매우 불편하다는 응답이 37%로 80%에

이르는 응답자가 문화시설 이용이 불편하다고 답하였음.

○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 중소도시가 2.66점으로 가장 높고, 읍면지역은 1.88점으로 문화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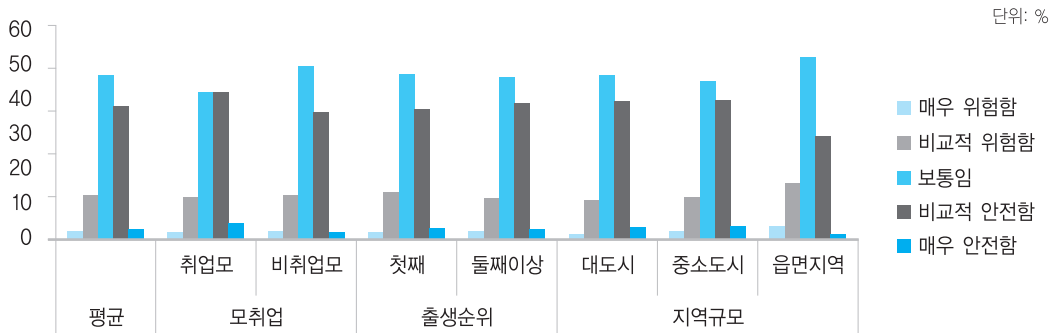
3. 치안 및 안전

■ 치안 안전성

- 치안안전성 측면에서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한지에 대한 문항에 '보통'이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높고, 안전하다는 의견은 40% 정도로 나타남.
- 지역규모에 따라 읍면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낮음.
- 어머니의 취업 유무나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음.

■ 안전사고 측면의 안전성

- 안전사고 측면의 안전성에 대해 '보통'이라는 의견이 43.0%로 가장 많음. '비교적 안전함'이라는 응답도 33.7%로 나타났지만, '비교적 위험하다'는 의견도 19.5%로 상당수 나타남.
- 어머니 취업 유무나 자녀의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그림 26] 안전사고 측면 안전성

4. 전반적인 육아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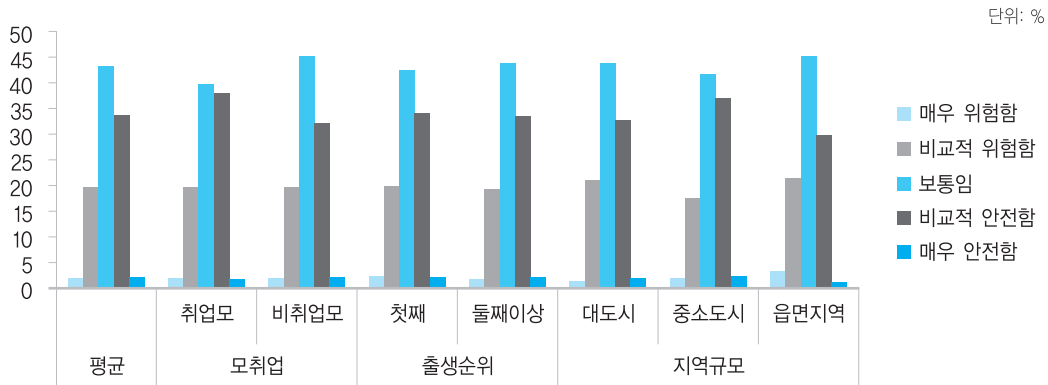
2007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부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 조성과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 조성을 구축하고자 함. 부모가 평가하는 현 거주지의 지역사회 특성이 실제로 아동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육아적절성을 조사함.

1) 전반적인 육아적절성

■ 육아적절성 조사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및 지필식 자기보고 문항임.
- “귀하가 현재 (또는 ○○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²⁾ 살고 계시는 동네는 전반적으로 아이를 키우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좋지 않음(1점)’부터 ‘매우 좋지 않음(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의 육아적절성이 높음을 의미함.
- 5점 만점으로 점수화한 결과 평균 3.2점이었으며, 1차년도 2.85점에 비해 높아 졌음.

2) ()은 위탁가구 대상 질문임.



[그림 27] 지역사회 전반적 육아적절성

■ 전반적 육아적절성 인식

- ‘보통’이라는 의견이 47.1%로 가장 많았고 ‘ 좋음’이라는 응답이 31.8%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 좋지 않다’는 의견은 15.0%이었음.
- 점수화한 결과 평균 3.2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만족하는 수준임.

■ 취업여부, 자녀의 출생순위, 거주지 규모에 따른 전반적인 육아적절성 인식

- 지역규모에 따라서 전반적인 육아적절성을 다르게 인식함. 중소도시 거주자의 육아적절성 인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대도시 거주자였음. 읍면지역 거주자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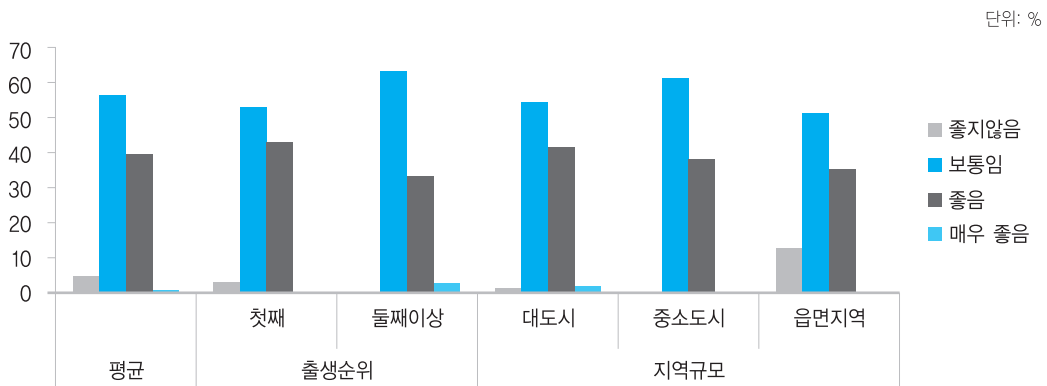
5. 위탁가구의 지역사회

■ 전반적 육아적절성 인식

- ‘보통’이라는 의견이 5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좋음’이라는 응답이 39.9%, ‘좋지 않다’는 의견은 2.4%이었음. ‘매우 좋지 않다’는 의견은 없음.
- 점수화한 결과 평균 3.4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만족하는 수준임.

■ 자녀의 출생순위, 거주지 규모에 따른 전반적인 육아적절성 인식

- 아이의 출생순위 또는 거주지 규모에 관계없이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좋음’이라는 의견이 그 다음으로 많았음. 중소 도시에는 ‘좋지 않음’과 ‘매우 좋음’이라는 의견은 없음. 읍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에 대한 의견이 높음.



[그림 28] 위탁가구 지역 전반적인 육아적절성

VI. 육아지원 정책 특성

지속적인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결혼, 출산, 육아기가 집중되는 연령대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한 현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낮출 뿐만 아니라 가임 여성의 출산력을 낮추는 요인이기 때문으로, 출산 육아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해 탄력 근무 조건을 보장하고 육아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구분됨. 이에 이들 제도를 강화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결정으로 위한 기초자료가 요구됨.

1.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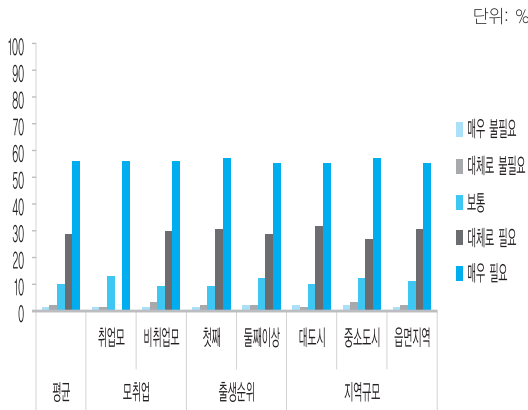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은 특히 2011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저출산 대응정책의 핵심임. 일하는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려면 특히 어린자녀의 경우 직접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자녀 출산 이후에도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하기 위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자녀 양육 시기에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형태에 대한 지원 등이 요구됨. 이 장에서는 이들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의 필요성과 정책별 우선순위에 관한 부모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함.

1)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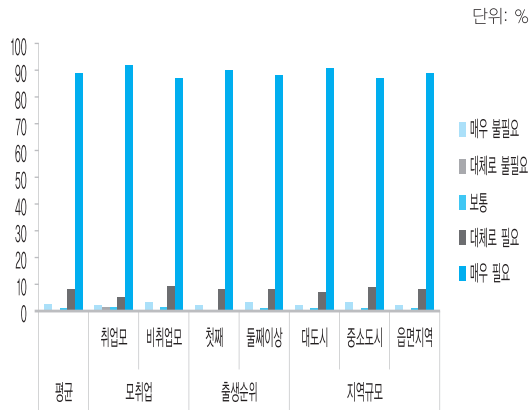
■ 자녀를 둔 부모들의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육지원, 수유실 설치 등 모성보호제도, 시차출근제 등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관한 부모들의 인식을 조사하였음.

■ 휴가 및 휴직

- 출산휴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여성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83.3%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남성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도 과반수이상인 56.0%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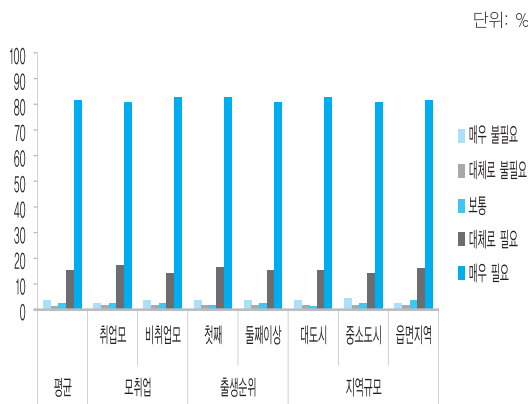
[그림 29] 남성출산휴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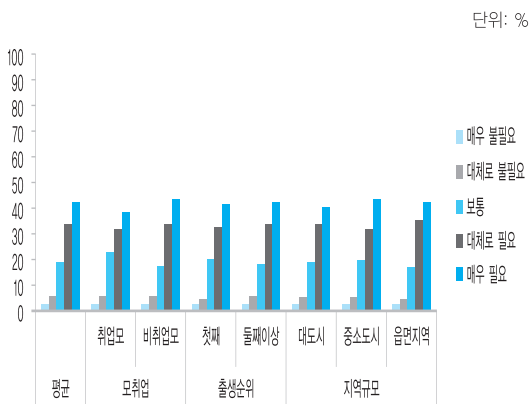
[그림 30] 여성출산휴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취업모의 경우 97.0%가 여성의 출산휴가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데 비해 비취업모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95.6%로 나타났다.
- 자녀의 출생순위별로는 첫째 자녀인 경우 여성의 출산휴가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96.9%)이 둘째 자녀 이상의 경우(9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여성의 육아휴직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74.6%를 나타내어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된 것으로 판단됨.



[그림 31] 여성의 육아휴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그림 32] 남성의 육아휴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비취업모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76.6%로 취업모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43〉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구분	전체	모취업	
		취업모	비취업모
매우 불필요	2.6	2.2	2.8
대체로 불필요	0.5	0.1	0.7
보통	4.7	6.1	3.9
대체로 필요	22.0	20.3	22.9
매우 필요	70.2	71.3	69.6
계	100.0	100.0	100.0
평균	4.57	4.59	4.56
표준편차	0.83	0.79	0.84

■ 보육지원 - 직장보육시설

○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의 70.2%가 매우 필요, 22.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92.2%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녀의 출생순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첫째 자녀의 경우 93.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둘째 자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91.2%를 나타냄.

■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조성

- 시차출근제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3.0%,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29.8%로 낮음.
- 대체인력풀 운영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7.9%,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33.3%로 시차출근제에 비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이는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대체인력풀 운영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함.

〈표 44〉 시차출근제 필요성과 대체인력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계	평균
시차 출근제	전체	2.1	2.2	12.9	29.8	53.0	100	4.29
	취업모	1.5	2.4	13.8	28.3	54.1	100	4.31
	비취업모	2.4	2.1	12.3	30.6	52.6	100	4.29
대체 인력풀	전체	1.8	2.2	14.8	33.3	47.9	100	4.46
	취업모	1.5	2.2	12.5	32.2	51.6	100	4.30
	비취업모	1.9	2.2	15.7	33.9	46.3	100	4.21

2)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우선 순위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중 우선 순위를 3가지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1순위로 응답한 제도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여성의 출산휴가가 61.4%로 가장 높고, 여성의 육아휴직(15.3%), 보육료 지원(11.4%), 직장보육시설(6.3%)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임.

–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특히 보육료 지원이 여성의 출산휴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14.6%)을 보여 여성의 육아휴직제도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한편 남성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우선 순위로서 1순위를 답한 비율은 낮게 나타나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됨.

〈표 45〉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우선 순위 - 1순위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여성의 출산휴가	61.4	60.6	61.9	63.2	59.8	60.7	62.4	61.3
여성의 육아휴직	15.3	15.9	15.0	17.2	13.5	14.7	16.1	14.9
남성의 출산휴가	1.5	0.7	1.7	1.7	1.4	1.0	2.0	1.7
남성의 육아휴직	1.2	0.6	1.5	1.2	1.2	1.0	1.4	1.2
직장 보육시설	6.3	7.5	5.7	6.2	6.5	7.5	5.6	4.9
보육비 지원	11.4	10.9	11.7	7.8	14.6	11.7	10.1	13.4
수유실 설치	0.6	0.6	0.6	0.7	0.4	0.9	0.3	0.5
유급 수유시간	0.1	0.1	0.1	0.3	-	0.2	-	0.2
시차 출근제	2.0	2.8	1.6	1.6	2.4	2.2	2.0	1.8
대체인력풀 운영	0.2	0.3	0.2	0.1	0.3	0.1	0.3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육아지원서비스 정책

육아지원정책은 크게 서비스(어린이집/유치원, 아이돌보미 등)의 제공과 재정 지원과 같은 현물 급여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저출산 기조 속에서 부모의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지역사회의 서비스 지원 체계가 강화되고 정책 마련이 다변화됨. 이에 대한 아동패널 부모의 2009년 의견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육아지원서비스 수혜 여부

■ 농어민 가정 육아비 및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수혜 여부

-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육아지원 정책 가운데 농어민 가정 육아비 수혜 여부(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금)와 도우미 지원 서비스 중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혜 여부를 질문한 결과, 아동패널 부모의 각 2.4%, 2.8%가 수혜경험이 있음.
 - 농어민 가정 육아비 지원의 경우, 취업모(0.9%)보다 비취업모(2.9%)가, 자녀가 첫째인 경우 (1.7%)보다 둘째 이상인 경우(3.2%)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경우, 비취업모(2.5%)보다 취업모(3.5%)가, 첫째아(2.2%) 보다 둘째 이상 (3.4%)일 경우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좀 더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됨.

2) 재정 지원 정책의 영향력 및 적정 지원금액

- 해당 패널 자녀의 출산 이후 어머니의 후속 임신 및 출산 의향을 결정하는데 미취학 아동 대상 무상 보육·교육 지원 및 양육비 지원의 영향력이 어떠한지 조사함.
- 패널 자료에 의하면, 보육시설 등 기관이용 중심의 서비스 제공보다는 양육비 지원과 같은 현물급여에 의한 후속출산 의향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보육시설 무상 지원 시 후속 자녀 출산 의향
 - 보육시설 무상 지원 시 후속 자녀 출산 의향이 있다 66.4%, 없다 12.3%, 잘 모름 21.2% 로 나타남.
 - 출산 부모의 후속 출산 긍정 의향이 과반수 이상의 수준으로 조사됨.
 - 어머니의 취업 및 거주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모의 후속출산의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자녀 출생 순위에 따라 무상지원시 후속출산의향에 차이를 보임. 해당 자녀가 첫째인 경우가 둘째이상아인 경우보다 높음.

〈표 46〉 보육시설 무상 지원 시 자녀 출산 의향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전혀 없음	5.8	6.4	5.5	2.9	12.1	6.1	3.2	11.7
거의 없음	6.5	4.2	8.3	5.0	9.7	7.2	5.4	7.3
조금 있음	52.2	59.0	46.3	49.5	58.1	52.3	52.2	52.0
매우 많음	14.2	11.8	16.2	16.8	8.7	14.8	14.6	11.4
잘 모르겠음	21.2	18.5	23.6	25.8	11.4	19.5	24.7	1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39	3.32	3.44	3.58	2.98	3.34	3.52	3.16
표준편차	1.07	1.03	1.10	1.02	1.06	1.06	1.02	1.16

■ 양육비용 일부 지원 시 후속 자녀 출산 의향 및 적정 지원 금액

- 국가에서 미취학 아동의 양육비용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지불할 경우의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출산의향이 있다 63.4%, 없다 8.5%, 잘 모름 28.2%로 나타남.
 - 기출산 부모의 후속 출산 긍정 의향이 과반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조사됨.
 - 해당 자녀가 첫째인 경우보다 둘째 이상일 경우가 낳을 의향이 '없다'는 비율이 더 많으나, 낳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에서는 출생순위에 따른 큰 차이가 없음.

〈표 47〉 양육비용 일부 지원 시 자녀 출산 계획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있음	63.4	64.4	62.0	62.4	65.4	70.4	64.7	38.9
없음	8.5	6.4	10.1	3.7	18.5	9.6	7.1	8.5
잘 모르겠음	28.2	29.2	27.9	33.8	16.2	20.0	28.2	5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산 비용을 지원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30만원 이상 50.5%로 과반수가 응답함.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6.9%,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12.3%, 10만원 미만인 0.3%로, 20~30만원 이상의 금액 지원을 선호함.
 - 자녀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어머니에게서 30만원 이상을 원한다는 비율이 74.2%로 첫째아 39.2%보다 높음.
 - 지역 규모에 따라 30만원 이상을 원한다는 비율이 중소도시 69.6%로, 대도시 39.2%, 읍면 지역 36.5%에 비해 월등히 높음.

〈표 48〉 양육비용 보조 희망 금액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0만원 미만	0.3	-	0.6	0.5	-	-	-	3.3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12.3	11.8	13.0	15.4	5.7	14.5	6.3	23.8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6.9	37.0	37.8	44.9	20.2	46.3	24.2	36.3
30만원 이상	50.5	51.3	48.6	39.2	74.2	39.2	69.6	36.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도움을 주신 분들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은영 | 도남희 | 양미선 | 유해미 | 이정림

이윤진 | 이형민 | 장혜진 | 최윤경 |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원 왕영희

한국 1세아동의 현주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2011년 4월 발행

발행인 : 조복희 육아정책연구소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110-734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6, 7, 10, 11층

전화_ 02. 398. 7700

www.kicce.re.kr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_ 02. 313. 7593(代)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10-734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6, 7, 10, 11층
전화 02-398-7700 팩스 02-730-3313

www.kicce.re.kr